



###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영화감독 양윤호 동문

영화감독 양윤호 동문을 만나 그의 영화인  
생과 우리대학 연극영화과의 추억에 대해  
들여봤다.

# 동대신문

### 김주일이언

다른 사람들이 '안락'이라 하는 것을 성자들은  
'고뇌'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뇌'라고  
하는 것을 성자들은 '안락'이라고 생각한다. 알  
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  
서 헤매게 된다.

숫다니파타 제 3장 대품 762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7호 2010년 (불기 2554년) 10월 4일 월요일

Cover Story 언론사 대학평가 발표 후 학내 구성원의 반응

## 대학평가, 구성원 합심(合心)의 계기로 삼아야 평가 결과 바탕으로 학내구성원과 동문 모두 각자의 역할 다해야

‘2010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  
수 평가’와 ‘2010 중앙일보 대학평  
가’가 지난 달 15일과 27일 각각 발  
표됐다. 우리대학은 올해 처음 실시  
된 ‘2010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  
수 평가’에서 종합순위 10위를 기록  
했다. 또 우리대학은 ‘2010 중앙일  
보 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 지난해  
보다 11계단 상승(上昇)한 17위에 올  
랐다.

이번 평가에 대해 학내구성원들  
은 대부분 긍정(肯定)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인사무처의 유한립  
 부장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를 처음으로 분리(分離) 평가해 100  
 퍼센트 비교는 어렵겠지만 지난해  
 에 비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  
 인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신  
 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은 “가능  
 성을 보인 순위”라며 “이번 순위 상  
 승을 바탕으로 지속적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  
 회장으로 최근 선임된 박순성(북한  
 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경  
 쟁관계에 있는 대학사회에서 뒤처지  
 지 않는다는 결과인 것 같다”며 “학  
 교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학교가 인정받고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경향신문 소통부문의 평가가 아쉽  
 다”고 말했다. 동문들도 긍정적 반  
 응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10위 내  
 진입(進入)했다”는 점에서 희망적”  
 이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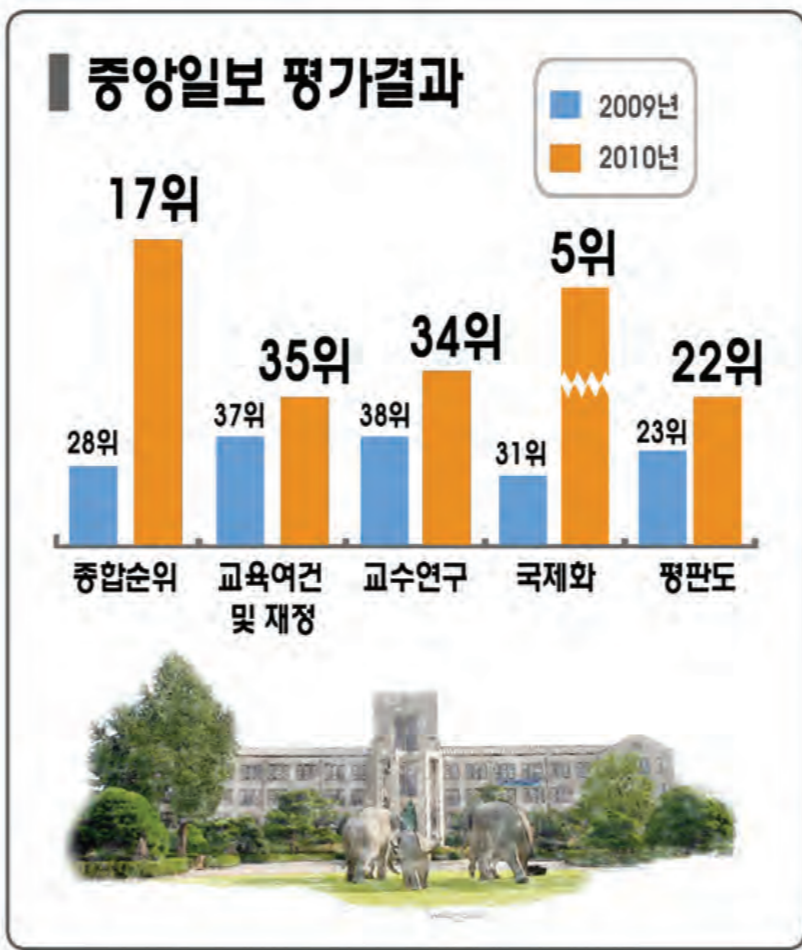
정적인 반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는 것이 평가 결과를 바라보는 구성  
 원들과 동문들의 공통(共通)된 의  
 견이다. 이번 평가의 결과를 학내구  
 성원들과 동문들이 합심(合心)해  
 우리대학이 3대 사학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은 “학교  
 의 발전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3  
 대 명문사학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미디어센터의 기사연결쓰기  
 를 통해 네티즌 ‘동국인’은 “10위권  
 에 진입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아  
 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10위권 이  
 내의 상위랭킹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구성  
 원들의 하나 된 노력을 촉구했다. 또  
 네티즌 ‘졸업생’은 “동국중흥은 이  
 제부터 시작”이라며 “교수, 학생, 직  
 원, 동문 모두가 힘을 모아 조금 더  
 노력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평가에서의  
 순위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  
 내구성원과 동문 모두 자신의 위치  
 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법인은 여건이 되는  
 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  
 고 대학 측은 학내구성원들을 뒷받  
 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생각이다.

또 학생들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본인들의 역량 하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인재(人才)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들  
 은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만큼 대학  
 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



▲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와 4대 분야의 순위.

가 있다. 동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에 지속(持續)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 밖에서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  
 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법인사무처의 유한립 부장은 “법  
 인, 분부, 학생, 동문, 교수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대학의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순성 신입 교수회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와 법인, 분부, 학  
 생, 동문 모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우리대학은 구성원들이  
 합심해 약대유지라는 성과를 이뤄  
 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국이 발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단  
 순한 지표가 아닌 동국인들이 합심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  
 다. 대학들 사이에 경쟁이 점차 심화  
 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머뭇거릴 시  
 간이 없다.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3  
 대 사학으로서의 동국의 저력(底力)  
 을 보여줘야 할 때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 고행상(苦行相)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는 아주 이색  
적인 불상이 전시되고 있다. 싯달타 태자의  
고행상인데, 실물크기의 사실적 묘사가 인상  
적이다. 부처님은 출가이후에 히말라야에서  
요가를 닦은 것으로 알려져 온다. 요가의 신  
체적 수련은 흔히 팔십수법(八實修法)이라  
고 하는데 즈나나(Jnana)요가의 핵심이기  
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정신과 육체의 합일  
을 추구하는데, 그 고행의 과정 중에서도 가  
장 어려운 것이 단식이다.



정병조  
유리문화학과 교수

불경에는 부처님의 설산수행에 관해서 다  
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그때 부처님은 세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  
고 수행하였다.” 아마 하루에 날알 두 세 개로 연명하지 않았는가 싶  
다. 그 고행은 끝내 부처님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으며, 그것은 또  
그분이 고행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 고행의 참담한 모  
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 고행상인데, 그 모습은 처절하다. 눈을 해  
골처럼 움푹 파였고, 광대뼈가 드러난다. 앙상한 팔다리에는 실핏줄  
까지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마치 실제로 부처님을 대한 듯한 느  
낌을 준다.

흔히 불상이라고 하면 둥근 얼굴에 입가의 미소, 풍만한 가슴 등  
을 내세우는 이른바 원만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고행상은 원만  
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묘  
한 카리스마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리장 없이 곧바로 관람객  
들에게 노출되었는데 최근에는 창살과 보호막으로 가려져 다소간 거  
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불상은 간다라의 후기, 혹은 굽타  
(gupta)시대의 작품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에는 고행상이 조성된 흔적이 없다. 나는 이 고행상이 조  
각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생각한다. 즉 부처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상향을 얻으려면,  
인고(忍苦)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뼈를 깎는 수행자의  
정신이야말로 그 시대의 사표이다. 행여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  
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노력 없는 성공, 수행 없는 승가는 개  
인이나 전체의 차원에서 묵인되어서는 안 되는 풍토이다. 흔히 공부  
에 왕도(王道)는 없다는 표현을 쓴다. 꾸준히 노력하는 인생이야말로  
값지고 존경받는 삶이다.

### 본사사령

◇ 임수승기자

- ▲한진희 (문과대 일문학과 1)
- ▲이지수 (사과대 국제통상 1)

▲안신정 (사과대 신문방송학 1)

- ▲박주현 (사과대 경찰행정학 1)

-이상 10월 4일자

다음주는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1월 1일자로 발간  
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동대신문

4 [특집] 대학평가 결과분석 8 [기획] 꿈을 좇는 우리시대 20대 12 [문화] 브라운관, 스크린 동국천하

## 동대문학상 동대학술상 모집

세상을 비추는 힘 | dongguk UNIVERSITY

동대신문사에서는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시상하여 학업부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문학과 발굴을 통하여 빛나는 동국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자 제48회 동대학술상 / 제25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동국의 미래를 열어갈 패기에 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및 분량

가. 동대학술상 :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나. 동대문학상 (1) 시 : 3편 내외 (2) 소설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회곡·시나리오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2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시부의 경우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3 응모자격 :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4 모집기간 : 2010년 10월 11일(월) ~ 11월 12일(금)까지

###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겹표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겹표지는 한 장만 작  
성

· 작품엔 이름 등 신상명세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문서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6 보낼곳 :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학술상·동대문학상 담당자

7 문의처 : 전화 (02)2260-3494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마당

8 심사결과발표 : 2010년 12월 6일자 동대신문(예정)

9 기타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응모된 바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당선자에게는 개별통보합니다.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 동대신문사

# 중앙일보 대학평가 17위...작년보다 11위 상승

## 경향신문 지속가능 지수 평가에서는 종합 10위, 학생생활 만족지표는 5위

우리대학이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0대학평가에서 350점 만점에 총점 173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8위보다 11계단 상승(上昇)한 결과다.

또 우리대학의 인문사회 중심대학 순위는 지난해 9위보다 3계단 상승한 6위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화 부문이 5위를 기록, 31위였던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은 각 분야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화 부문이 5위로 지난해보다 26계단 상승했고, 평판도는 23위였던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은 지난해의 37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35위를 기록했다. 또 2008년에 비해 9계단 하락해 지난해 38위를 기록했던 교수연구부문은 34위를 기록했다.

부문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화부문의 경우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23위→6위), 전공 영어강좌 비율(17위→8위),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35위→13위), 외국인 교수 비율(20위→16위),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37위→20위)이 모두 고르게 상승했다. 국제화 부문은 지난해보다 26단계 상승해 이번 평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평판도의 경우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신설항목, 20위), 입학에 추천하고 싶은 대학(29위→20위), 업무에 필요한 전공·교양 교육이 잘 되어있는 대학(24위→22위),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33위→23위),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26위→23위), 기부하고 싶은 대학(29위→25위), 등 대체로 20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취업률이 31위였던 지난해에 비해 48계단 하락한 79위를 기록해 큰 하락세를 보였다.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은 교수 확보율(34위→20위), 교수 당 학생 수

(29위→22위), 교육비 환원율(63위→47위), 세입 중 납입금 비율(72위→55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신설 항목인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1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숙사 수용률(65위→85위), 학생당 도서 자료구입비(37위→51위), 세입 중 기부금 비율(27위→41위)은 크게 하락했다.

교수연구부문의 경우 일부 세부 결과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增加)했다. 인문사회교수 당 국내 논문 게재 수(43위→12위)는 지난해에 비해 31계단 상승했고, 계열평균교수 당 자체 연구비(51위→26위)는 25계단 상승했다. 이 밖에 과학교육 교수 당 기술이전 수입액(18위→12위), 과학기술 교수 당 지적재산권 등록(29위→14위) 등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과학기술교수 당 최근 5년간 논문 피인용수(47위→53위), 과학기술교수 당 SCI계재수(47위→55위), 과학기술교수 당 SCI 논문 영향지수(43위→60위) 등은

하락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경향신문이 실시한 '2010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 종합평가 순위 10위에 올랐다. 이번 2010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는 경향신문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진행했으며 다섯 개 분야(교육600, 연구400, 진로300, 소통·형평200, 편의100)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졌다. 우리대학은 종합평가에서 1,600점 만점에 총점 1,187점을 차지했다. 분야별 순위는 편의의 2위, 소통·형평 4위, 교육 13위, 진로 13위, 연구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경향신문 대학평가의 경우, 전국 상위 30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편의, 소통 등 '학생생활 만족지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생활만족지표 조사 결과, 우리대학은 포항공대, KAIST, 서울시립대, 서울대에 이은 5위를 차지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 동국미디어센터, 아리랑 TV와 산학협력 체결

### 영상 콘텐츠 교류·학생기자 교육 등 협력키로

동국미디어센터(센터장=유현우 교수)가 아리랑TV와 지난달 28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산학협력 협약은 ▲ 방송 콘텐츠 교류 ▲ 학생기자들의 방송실습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현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영

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TV 이명경영본부장은 "동국미디어센터가 가진 방송역량을 높이고 아리랑 TV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미디어센터와 아리랑TV 관계자, 그리고 교육방송국 학생기자들이 참석했다.

## 회전무대

### 기부의 핵심

○...최근 동악이 훈훈함으로 가득 찼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우리대학 윤길산 연습림의 관리인 엄기문 씨가 32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1,100만 원을 모두 기부했다고. 이에 본회전무대자 왓 "기부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닌 기부자의 마음입니다."

### 그 주점의 안주 값

○...특별한 주점이 열렸다? 무슨 말이고 하니, 윤리문화학과가 지난 목요일 학과구조조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에서 주점을 열었다고. 이에 본회전무대자 왓, "우리의 안주 값은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당신의 충분한 숙지!"

## 신임 교수회장에 박순성 교수

### 2010학년도 2학기 교수회 임시총회 개최

교수회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박순성 교수를 신임교수회장으로 선출(選出)했다. 정각원 법대에서 열린 이번 임시총회에는 321명의 재직교수 중 107명이 참석하고 92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정족수 161명을 과반으로 충족(充足)시켰다.

이날 교수회는 만장일치(滿場一致)로 박순성 교수를 차기 교수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순성 교수는 "애

교심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언제나 교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는 신임교수회장 선출 안전(案件) 외에도 총장후보자 선출 개선 방향 보고와 교수회 규정 변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총장후보자 선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자질 검증 및 투표로 이뤄지던 총장후보자 추천 방식에 교수회의 검증 및 추천을 추가하는 안이 보고(報告)됐다.

더불어 이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 총장후보 검증 및 추천에 관한 규정 변경안도 보고됐다. 또한 규정 변경에 관해서는 1학기 교수회 정기총회 결정사항에 따른 상벌규정 신설안이 보고됐다.

안에 따르면 교수회의 이익이나 권위, 명예를 훼손한 자는 교수회원 자격을 박탈(剝奪)하고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기모 기자 km1004@dgu.edu

## 제 14대 직원노동조합 출범식 열려

우리대학의 제14대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 출범식 및 2010년 정기총회가 지난 30일, 중강당에서 개최(開催)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117명과 내·외빈 30여명이 참여

(參與)했으며, 신임 직원노조 위원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지난 8월에 개최됐던 임시총회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변승재(문과대학 학사운영실) 위원장과 조성환(학생

서비스팀), 조계상(총괄지원팀) 부위원장의 공식적인 취임식과 더불어 감사 2명, 집행부 13명의 임명식이 동시에 이뤄졌다.

한편 이날 열린 직원노조 정기총회에선 2010년의 수입·지출 등의 사업결산보고 및 2011년도 사업계획 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 수시 1차 모집 최종 경쟁률 26대 1

### 연극학부 113대 1로 최고 ... 11월 8일 합격자 발표

우리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가 지난 13일 마감됐다. 총 1,270명 모집(募集)에 3만3,094명이 지원, 26.06대 1의 최종경쟁률을 기록(記錄)했다. 이는 19.5대 1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반우수자 전형은 444명 모집에 1만9,869명이 지원해 44.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경쟁률은 일반(연극학부)전형으로, 25명 모집에 2,830명이 지원해 113.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551명 모집에 7,187명이 지원해 13.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o Dream 특성화 전형'은 모집인원 156명에 1,572명이 지원하여 10.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중구핵심인재 전형은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교장추천 전형은 9.18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수시 1차 모집 최종합격자발표는 11월 8일 본교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안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단 전공재능우수자(연기재능) 전형은 오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하현정 동문, 국제미인대회 1위

### 한국인으로는 첫 1위 입상 눈길



우리대학의 하현정(연극06)동문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10 미스 투어리즘 퀸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1위

를 차지했다. 또 하현정 동문은 1위 수상에 이어 특별상인 '미스 매력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오르게 됐다.

## 2011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정	모집학과	모집전공
박사	문화콘텐츠	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	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 (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 게임제작
석사	문화콘텐츠	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	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 (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 게임제작
공연예술	연기연출, 공연제작	

### 2. 일정 및 접수 안내

- 가. 원서접수: 2010.10.25(월) ~11.1(월)
- 나. 전형일: 2010.11.6(토)
- 다. 합격자 발표: 2010.11.16(화) (예정)
- 라. 문의처: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 02-2260-3763, 3764.
- 마. 동국대(대학원 포함) 졸업 후 6학기 이내 본 대학원 입학시 입학금 면제.

영 상 대 학 원

## 미적분학및연습 튜터링 안내

수학과에서는 미적분학및연습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기간 : 2010.09.01~12.21
2. 일시 : 월~금, 오후 2~4시
3. 장소 : 과학관 116호
4. 대상 : 미적분학및연습 수강생 전원
5.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수 학 과

### [사과의 향연]

## 思考문치, 제6회 동국 글쓰기 아카데미 2010년 2학기 글쓰기 아카데미

### 강 좌

(시적 상상력과 글쓰기)  
강사: 강정(시인, 추계예대, 한예중 강사)  
일시: 10월 15, 22, 29일, 11월 5일(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강의실: M(동국관) 122

(실전, 자기소개서쓰기 특강)  
강사: 하정수(동국대, 홍익대 강사)  
일시: 10월 12일, 19일, 26일, 11월 2일(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강의실: M(동국관) 111

\* 강좌당 주회 2시간(총 8시간, 4주 과정)

### 기 타

- ▶ 신청방법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 ▶ 등록기간 2010년 10월 1일(월) ~ 각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 ▶ 신청대상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 기타 각 강좌당 20명 선착순 마감 / 수강 신청 시 수강료 10,000원 납부 (3/4 출석 시 환불)

\* 수강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학과,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강좌명, 담당강사명]

교 양 교 육 원 글 쓰 기 센 터

# 2010 홈커밍데이, 훈훈한 분위기 속 성료

##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2000여명의 동문 참여

동문들의 방문으로 오랜만에 동아기가 북적였다.

지난 2일 오후 4시30분부터 '2010 홈커밍데이 행사'가 각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과 만해광장에서 개최됐다.

'2010 홈커밍데이'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1부 행사인 '대학(원)별 만남의 장'에선 각 학과별 자체 행사가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예술대는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 앞에서 다과회를 열고 동문들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이 전시한 작품(作品)을 감상하기도 했다.

당초 만해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雨天)으로 인해 중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 2부 행사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는 재미와 화합에 초점을 맞춰 편안한 분위기의 파티가 열렸다.

'뚝딱이 아빠'로 알려진 김종석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내빈들의 축사와 재학생들의 공연, 초대가수 인순이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초대가수 인순이 씨는 "오직 모

교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이긴 쉽지 않다"며 "동국대 발전의 원동력(原動力)은 동문들의 이런

열정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종미(교육학과 85졸) 동문은 "행사에 참여한



동안 학교의 노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이만수(체육교육 85졸) 동문은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오니 고향에 온 것 같아 따뜻함이 느껴

진다"며 "앞으로도 홈커밍데이가 학교 구성원들의 화합(和合)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학내에 훈훈한 기부 행렬 연이어

## 연습림 관리인 엄기문 씨 퇴직금 전액 쾌척...교수·동문 기부 잇따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혹은 학교에 발전기금을 보태기 위해 교수와 동문 등학내 구성원들의 기부 활동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연습림 관리인이었던 엄기문 씨가 퇴직을 맞아 퇴직금 1,100만 원을 전부 발전기금으로 쾌척(快擲)해 이목을 끌고 있다. 엄기문 씨는 지난 32년간 우리대학의 운길산 연습림 관리소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해 왔다.

엄기문 씨는 지난 1일에 총장직접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많은 동국인들의 도움으로 무탈하게 정년퇴직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혜택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기문 씨가 기부한 1,100만원의 발전기금은 약학관 건립(建立) 및 교육

연구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총동창회 역시 후배 인재 양성을 위해 '2010학년도 2학기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달 15일 본관 4층 로터스 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1억 1천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일인당 100만원 씩, 총 11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연택 동문은 인사말에서 "금액을 떠나, 모교의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명예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장학금 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 박정극 학장은 지난달 28일 총장직접실에서 서봉장학기금을 약정했다. 서봉장학기금은 박정극 학장의 급여중 100만원씩을 매달 적립(積立)해 매년 1,200만원의 금액을 4

명의 학생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장학기금이며,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의생명공학과 2~4학년이다. 서봉장학기금은 지난 9월을 시작으로 박정극 학장의 퇴임까지 향후(尙後) 6년간 계속되며 총 수령금액은 7,200만원, 총 수령인원은 24명이 될 예정이다. 박정극 학장은 "퇴임 전까지 작은 것일지라도 후학(後學)들을 위해 기여하고 싶었다"며 "이 기금을 통해 의생명공학과에 몸담는 우리 대학생 중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故 박관호 명예교수가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故 박관호 명예교수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도 지난 2일 명진관 A104호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총 4명의 학생이 각각 3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故 박관호 명예교수 제

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로 12회째 이뤄졌으며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와 대학원생 중 학업·연구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순표 동문의 로터리클럽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지난 1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전순표 동문과 최순열 학사지원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전순표 동문은 무역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송 학생과 바이오환경공학과에 재학중인 김호섭 학생에게 각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순표 동문은 "장학금은 동국대 학생이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 오영교 총장, 예일대 소송 관련 방미

## 예일대 측 잘못된 학위검증 피해 사례 증언

오영교 총장이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증인신문(證人訊問)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코네티컷주를 방문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단 참여 아래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관

계자의 증언을 녹음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오 총장의 증인신문에 이어 11월에는 예일대 레빈 총장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예일대의 허술한 학위검증에 대해 우리대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뤄진 것이다.

# 오는 6일, 언론고시 취업특강 실시

## 7일, 한국가스공사 취업특강 개최예정

우리대학 동국미디어센터가 언론사 입사(入社)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고시 취업특강을 진행(進行)한다.

이번 특강은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인 한상용 동문(일어일문 졸업)이 진행하며, 동문 언론인의 현장(現場) 정보와, 언론고시 준비에 관련된 실무(實務)적인 정보를 전달(傳達)할 예정이다.

언론고시 취업특강은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본관1층 C104 강의

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사회과학대학이 한국가스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개최(開催)한다. 한국가스공사 취업특강은 오는 7일, 6시에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한국가스공사 인사팀 안동주 차장이 맡았으며, 한국가스공사의 비전 및 동향(動向), 채용 계획, 입사 지원 전략(戰略) 등을 설명(說明)한다.

# 이과대 학생회, 정원감축 설명회 개최

## 70여명의 이과대 재학생 참석해 정원 감축 항의

이과대 학생회가 지난 29일 명진관 A104호에서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진행은 박천순(반도체4) 이과대 학생회장이 맡았으며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의한 이과대

학생들에게 상세히 알렸다. 박천순 학생회장은 "우리대학 물리학과가 2008년 대교협에서 최고 물리학과 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인원 감축을 당했다"며 학교 측의 기준(基準)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 6회 목멱가요제, 오는 28일 개최

## 5일까지 접수, 2차례 예선치른 후 본선진출 확정

총학생회 주최(主催)로 열리는 목멱가요제가 오는 28일, 대운동장에서 진행(進行)될 예정이다. 1차 예선은 오는 8일 학생회관 1층에서, 13일에는 학림관 소강당에서 2차 예선이 이뤄지며 1·2차 예선에 통과한 참가자만이 본선 무대에 진출(進出)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5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홈페이지(www.dgyou.net)에서 참가 신청서를 출력한 다음 총학생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8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과 인기상 수상 학생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 동악포에서

강기모 기자  
kmi004@dgu.edu



# 고장난명 (孤掌難鳴)

우리문화학과 학생들은 학과구조 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만화와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하고,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관한 퀴즈풀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점에 참여한 안혜원(수학2) 양은 "수학과 학생으로서 학과구조 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구조 조정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노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문화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냉담한 반응만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조승연 양은 "학과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여러 행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학교 측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양은 심지어 "학생서비스팀의 한 관계

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주점을 계속할 경우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문화학과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에 의해 2명의 정원이 감축됐다.

지난해 독문과가 13명의 정원으로 감축된 후 폐과된 바 이어 학생들은 우리문화학과도 폐과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조승연 양은 "학생들은 학과가 폐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학교측은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다.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속에서, 우리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학생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2010 언론사 대학평가 분석

# 전 영역 고른 상승... 국제화 영역 상위권 올라

지난달 15일과 27일 '2010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와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우리대학은 각각 10위와 17위에 올랐다. 이에 본지에서는 평가 항목별 결과에 대해 분석해봤다.



구분	가중치	점수	순위
종합	1,600점	1,187점	10위
교육	600점	412점	13위
연구	400점	328점	16위
진로	300점	229점	13위
소통·형평	200점	137점	4위
편의	100점	80점	2위

▲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항목별 우리대학 평가순위(좌) ▲ 2010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결과(우)

## 중앙일보 인문사회중심대학 순위 : 전국 6위

우리대학이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35위를 기록했다.

###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 소폭 상승

교수당 학생 수는 지난해 29위(26.43명)에서 22위(23.88명)로 상승했다. 교수 확보율은 지난해 34위(82.89%)보다 14단계 오른 20위(95.67%)를 기록했다. 신설(新設)된 항목인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18.99%를 기록해 13위에 자리했다.

기숙사 수용률과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는 각각 85위(4.68%)와 51위(94,751.56원)로 65위(10.28%)와 37위(108,556.00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기숙사 수용률에 대해 경영평가실 방중혁 과장은 "현재 기숙사가 있는 경주 캠퍼스와 분리평가를 시행하면서 서울캠퍼스는 불이익을 봤다"며 "내년 말에 기숙사가 완공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는 예산배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해 하락했다. 본부 측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당 교육비는 9,570,383원으로 지난해 39위(9,570,383원)보다 5계단 상승해 34위를 기록했다. 교육비 환원율과 세입 중 납입금 비중은 각각 47위(128.75%)와 55위(67.21%)로, 63위(127.32%)와 72위(76.86%)였던 전년도에 비해 올랐다. 학생 총원율은 올해도 100%를 기록했다.

중도 포기율은 1.7%로 8위에 올라 1.91%로 23위였던 지난해보다 15계단 올랐다. 하지만 세입 중 기부금은 41위(2.64%)로 지난해 27위(3.53%)보다 떨어졌다. 실질적인 기부 양은 증가했으나 현물(現物)인 박물관이나 토지의 기부는 제외돼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은 13위로 30위의 중앙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도 포기율도 8위를 차지해 중앙대(15위), 경희대(16위) 등을 앞질렀다. 기숙사 수용률,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는 50위권 밖을 기록했으며 학생당 교육비와 교육비 환원율에서도 각각 34위와 47위로 부진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방중혁 과장은 "지속적인 교원 충원으로 교수 확보율, 교수당 학생 수 지표가 개선됐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취약하게 나온 것이 아쉽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올해 신설된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의 교육부분에서 우리대학은 600점 중 412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성균관대(15위), 한양대(16위)보다 높은 수치다. 교

육부분은 교육여건, 국제화, 등록금, 학생실문의 부문으로 이뤄진다.

### 국제화 부문 크게 상승해

우리대학은 국제화 부문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26단계 상승한 수치다.

국제화 부문의 세부지표는 △전임 이상 외국인 교수비율(20)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15)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10)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5) △전공 영어강좌 비율(20)이다. 우리대학은 국제화 부문 5개 항목에서 모두 작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요인으로 캠퍼스 분리평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순위 상승에서 학교측의 노력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화추진단 김일중 단장은 "지난 4년 동안 국제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표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은 8.58점으로 35위에서 13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외국인서비스센터 허정인 직원은 "분리평가를 한 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교수 비율은 12.59점으로 20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은 6.96점으로 23위에서 6위로,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은 2.76점으로 37위에서 20위로 올랐다. 이와 같이 교환학생 관련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2007년 40여 개에 불과했던 해외 자매대학 수가 올해 120여 개로 증가한 결과다. 또 전공 영어강좌 비율은 15.25점으로 17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방중혁 과장은 "지난 2~3년동안 영어강좌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며 "올해 전공 영어강좌 비율을 30%대로 올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년간 외국인 전임 교원 수를 늘려온 것은 영어강좌 비율도 높이고 국제화 부문 순위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할 기숙사가 없어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 학생 비율에서 20위를 해 이화여대(6위), 성균관대(15위)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16위를 차지한 외국인 교수 비율에서는 우리보다 종합순위가 2단계 높은 경희대(28위)보다 우위(優位)에 올랐다.

김일중 단장은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유학생 국적을 다양화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 평가에서 외국인 교원 비

율, 외국인 재학생 비율, 해외파견 학생 비율을 조사한 국제화 부문은 교육(600점)으로 분류돼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됐다.

### 평판도 부문 다소 낮은 평가

평판도 영역에서는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22위를 기록했다. 평판도 영역은 본래 작년까지 평판 및 사회진출도라는 항목으로 평가됐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지표에선 2.62점으로 2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3계단의 순위상승을 했다. 업무에 필요한 전공(교양)교육이 잘 되어있는 대학 지표에서는 22위(2.63점)로 역시 전년의 24위(0.47점)보다 2계단 올랐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지표에선 2.37점을 기록한 23위로 지난해보다 10계단 상승했다. 입학추천하고 싶은 대학 지표는 20위(3.02점)로 9계단 올랐다. 기부하고 싶은 대학 25위(2.35점)에 오른 우리대학은 29위(0.44점)보다 4단계 위의 순위를 기록했다. 신설된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지표에서는 2.59점으로 20위를 차지했다.

위의 항목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방중혁 과장은 "몇 년간 하락하던 평판도가 오르고 있다"며 "학교 측의 노력으로 점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체 평판도 순위가 크게 변동이 없는 데에는 저조한 취업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대학의 취업률은 45.9%로 7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56.95%를 기록해 31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8계단 하락한 수치다. 작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선 취업률을 계산할 때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의 합을 2로 나누는 계산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DB(Database)에 포함된 정규직 취업자 수를 취업률로 측정했다. 건강보험DB는 정규직의 취업률만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는 예술 계통 직종이나 성직자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대학에겐 불리한 평가 기준이다. 이에 대해 방중혁 과장은 "예술인이나 승려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돼 이런 조사 방식에선 미취업자와 동일시된다"며 "이 부분이 취업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김해덕 직원은 "향후 방학 때의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학점을 인정해 학생들의 관심을 키우고 나아가 취업 전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의 진로부분에서 우리대학은 300점 만점 중 229점을 받아 13위에 올랐다. 이를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765.48인데 시립대(14위)와 중앙대(15위)가 우리대학 바로 아래에 자리했다. 진로부분은 인턴십, 취업률, 진학률, 고시합격의 부문의 평가로 이뤄진다.

### 교수 연구, 약점으로 지적

지난해 38위를 기록했던 교수 연구 부문이 올해 4단계 상승한 3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저조한 성적이다. 교수 연구 부문은 총 11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해 점수 자체는 지난해에 비해 28점이 증가했으나 순위 상승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교수 연구 부문은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연구비(Z값)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Z값)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수(편)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 & HCI 게재수(편)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수(편)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IF △과학기술 교수당 SCI, SSCI, A & HCI (최근 5년간) 피인용수(편) △과학기술 교수당 지적재산권 등록(점)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천원)의 항목에 따라 평가됐다.

이번 교수 연구 부문에서는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와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수(편)이 지난해 각각 51위, 43위에서 26위, 12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지표 부문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경영평가실 방중혁 과장은 "학교 측에서 크게 노력한 것은 없으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인문사회 체육 교수당 SSCI, A & HCI 게재수(편)의 경우 지난해 46위에서 13계단 상승한 33위를 기록했고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연구비 연구비 또한 지난해 21위에서 2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 부문에서 인문사회계열이 상승을 기록한 것에 반해 과학기술 교수 연구 영역에서는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부터 경주캠퍼스와의 분리평가로 의대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빠져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수(편)이 지난해 47위에서 55위로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IF로 피인용수(편)가 지난해 43위에서 60위로, 과학기술 교수당 SCI, SSCI, A & HCI(최근5년간)가 47위에서 53위로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 올해부터 계산식이 변경된 과학기술 교수당 지적재산권 등록(점)과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천원) 항목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5계단, 6계단이 상승한 29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이번 교수 연구 부문 평가에 대해 최근 선임된 박순성 교수회장은 "과거에 비해 연구 지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수 연구 부문의 평가의 경우 대부분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방중혁 과장은 "우리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미약한 상태"라며 "재정적 부분이 확충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설된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 연구 부문에서는 총 400점 만점에 328점을 기록해 전체 순위에서는 16위를 기록했다.

### 대학지속가능지수는 10위에 올라

우리대학은 올해 신설된 '2010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경향신문사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에서 발표한 첫 번째 대학 평가결과다. 경향신문의 대학평가의 경우 타 언론사에 비해 연구영역 가중치가 낮으며(조선 60%, 중앙 32%, 경향 25%) 대외평가 최초로 재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도입돼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이다.

평가는 △교육 △연구 △진로 △소통/형평 △편의의 다섯 개 분야로 각 1,000점씩 배점되어 진행됐다. 경향신문 측은 대학서열화를 지양한다는 의미로 대학의 종합평가순위는 지면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역별로 가중치(교육600, 연구400, 진로300, 소통/형평200, 편의100)를 반영할 경우 우리 대학은 교육부분에서 412점, 연구 부분에서 328점, 진로부분에서 229점, 소통/형평부분에서 137점, 편의 부분에서 80점을 기록해 총점 1,187점을 얻었다.

이번 평가는 대부분 중앙일보와 비슷한 평가요소로 구성돼 있으나 소통/형평과 편의부문은 경향신문만의 독특한 기준이다.

강의평가 공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소통/형평 영역에서는 200점 만점에 137점을 획득해 4위에 올랐다. 우리대학은 도서 및 교육기부시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土臺)로 평가한 편의 영역에서 총 100점 중 80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중 '시설 및 기자재 대응이 유리하다'(1위), '우리학교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2위),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3위) 등 22개의 설문항목 중 17개가 상위 50%(15위)이내에 들었다. 이에 대해 경영평가실 방중혁 과장은 "경향신문 대학평가를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의 행정적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동국 문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② 미당 서정주

# “만해가 시인이기도 했다면 미당은 오직 시인”

## 세계의 ‘가장 후미진 서재’에서 ‘최후의 생각’과 ‘최후의 책임’을 노래한 우리 시의 ‘문화재’

미당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 기자는 시(詩)의 정부(政府)가 스러졌다며 애도사를 썼다. 한국 현대 시의 벼락같은 축복이라는 수사가 과장이 아니었던 한국 현대 서정시의 거장. 우리대학의 소중한 보물이자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마음의 문화재’ 미당,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① 한 문화행사에서 부인(오른쪽 끝) 방옥숙 여사, 영화배우 윤정희 씨와 함께 한 미당. ② 고창에 소재한 미당 시문학관의 전경. ③ 남현동 자택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던 모습.



① 한 문화행사에서 부인(오른쪽 끝) 방옥숙 여사, 영화배우 윤정희 씨와 함께 한 미당. ② 고창에 소재한 미당 시문학관의 전경. ③ 남현동 자택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던 모습.

### 연재 순서

1. '님의 침묵'의 한용운
2. 질마재 신화의 서정주
3. '승무'의 동탁 조지훈
4. 목가적 서정시인 신석정
5. '낙화의 신화' 이형기
6. '농무'의 신경림
7. '태백산맥'의 조정래

### 도서관에 아로새긴 동국 정신의 꽃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잠시 머리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학생카드를 꺼내 출입하는 그 자리 위에 ‘동국 정신의 꽃’이 활짝 피어 있다. 자주 드나들어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꽃은 무슨...”이라고 묻는다면 ‘뉘이는’ 거다. 평편하고 기다란 그리스 대리석에 제법 긴 시가 새겨져 있을 뿐이다.

누구든지 이 시를 백 번 읽으면 진짜 ‘동국인’이 된다. 1968년 개교 62주년 (동대신문) 기념호에 발표된 미당 서정주의 모교 찬시다. 40년이 훌쩍 넘었다. 지금 읊어도 가슴 울렁거리고 기상이 뻗쳐오른다. 세상의 모든 모교 찬양시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여’라는 작품이다.

100주년을 맞아 교정에 세운 세 기념시비가운데 하나다. 2006년 봄, 명진관 프락에 조지훈 시비, 해화문 밖 공원에 신경림 시비가 함께 건립되었다. 기왕에 세워진 본관 북쪽의 한용운 시비까지 합쳐, 교정엔 동국문학 100년을 대표하는 시비가 네 군데 서게 되었다. 미당 시비는 특이하게도 도서관 ‘현관’ 위에 ‘걸려’ 있다. 그의 시는 대학의 핵심 엔진인 도서관에 왜 걸려 있게 된 걸까? 미당은 세계의 ‘가장 후미진 서재’에서 ‘최후의 생각’과 ‘최후의 책임’을 노래했다. 학점과 취업 걱정 때문에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즈음의 학생들에게 고상한 형이상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후의 생각’과 ‘최후의 책임’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이고,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위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세상을 위한다)의 현대적 번역이다.

이 ‘공중문패’야말로 보편적 가치이며 동시에 동국대학교 특유의 정체성인 것이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황금의 꽃 같이 굳고 빛나는’ 그! ‘동국 정신의 꽃’이라 자랑스럽게 불려도 좋다. 공중에 높이 달린 우리의 문패.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여’라고 노래하는 동국 정신의 꽃을 바라보는 일은 오직 우리 대학만의 행복이다.

이 시간 이후, 이 시를 읽고 외우고 피 속에 뱉속에 저장하여 완전히 자기화하면 우리는 누구나 씩씩하고 지혜로운 동국인이 된다.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고 오래 묵은 시간의 인연이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정신에 가슴이 불끈거린다. 혈관 속에서 힘이 툭툭툭 불거져 나오는 걸 느낀다.

시 한 편이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 수처 작주 임처개진(隨處作主 入處皆眞), ‘어디에 있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란 걸 깨우치게 된다. 경제, 국방 등의 하드파워보다 문화라는 소프트파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 서정주는 자신의 모교와 후배들에게 이런 마음을 선물한 우리 선배다.

### 미당 서정주와 동국대학교

미당 서정주(1915~2000)는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이다. 1935년에 입학했으나 35학번이다. 전 학년 수학을 하지 못했고 1년만 겨우 다녔다. 일제 강점기에, 많이 방황한 까닭이다.

광주학생운동지지 데모하다가 중앙고보(현 중앙 중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당했다. 전라도 고창에서 유학 온 중학 2학년짜리가 반일운동으로 퇴학당했으니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 소년을 데려다 후원해 준 인물이 당대 조선 최고의 석학인 석전 박헌영 스님이다.



### 미당 서정주 연표 (1915 ~ 2000)

1915년 5월18일 : 전북 고창 질마재 마을에서 출생. 1930년 : 광주학생운동 1주년 기념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퇴학. 1935년 :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 1936년 :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백'이 당선. 1954년 : 예술원 창립과 함께 예술원 회원 및 서러벌 예대 교수 됨. 1960년 : 동국대 교수가 됨. 1966년 :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1975년 : 여섯번째 시집 '질마재신화' 출간. 1997년 : 열다섯번째 시집 '80 소년 떠돌이의 시' 출간. 2000년 12월 24일 노환으로 영면.

석전 스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계의 제일 큰 어른이신 종정스님인 동시에 대학 총장이기도 한 분이다. 총장의 특별한 야금 덕에 입학은 했으나 무엇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청년의 서러움은 스스로를 중퇴생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나 이 1년의 시간은 그에게 크나큰 운명을 만들어준다. 1960년,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어 다시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사실은 이 학연 때문이다.

미당은 전문학교 중퇴 학력이었지만, '화사집'(1941), '귀족도'(1948), '서정주시선'(1956)을 발간해 이미 최고 시인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이 나라의 천재시인은 갖 서른에 대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 대학에 강의의 다녔지만 정식 교수 발령은 그의 모교에서 가능했다.

미당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는 동안 그는 명실상부한 한국 현대시문학의 '아버지'였다.

그는 종신토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었으며, 대표작이 제일 많은 시인이고, 노벨문학상 후보로 다섯 번이나 추천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인이었다.

필자가 학교 다닐 때, 미당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문학사전'이었다. 그의 강의는 풍성하고 경이로운 '문인 교류담'일 때가 많았다.

이상, 김명량, 오장환 등 우리가 문학사 시간에 배우는 술한 문인이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다.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국의 자랑이었고 신화였다.

### 서정주, 한국문학의 최정상

서정주는 동국문학의 울타리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20세기 한국문학의 최정상이자 대표작 몇 편으로 그를 공부하는 풍토가

안타깝다. 그는 시를 쓴 기간만 70년이다. 15권의 시집, 1천 여 편의 시를 발표했다. 5천년 한국 역사에 대한 애정, 민족 정체성과 겨레의 아름다움 발견, 작품 한편 한편의 미학적 완성도,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예술가 정신, 이 모든 분야에서 서정주와 비교할 만한 시인은 없다.

한용운이 이도득시(以道得詩, 도를 깨달은 이후에 시로 그 경지를 표현하다)했다면, 서정주는 이시득도(以詩得道, 시를 공교롭게 잘 써서 마침내 도의 경지에 이르다)의 경우다. 만해가 '시인이기도' 했다면, 서정주는 '오직 시인'인 것이다.

김소월은 뛰어난 국민시인이었으나, 언제나 '서럽고 짧은' 시인일 뿐이었다. 인생의 간난신고와 우여곡절을 '시의 한 생애'로서 파란만장하게 보여주는 서정주와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윤동주, 정지용, 김수영도 어렵다.

인생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생각의 폭과 깊이에서, 서정주가 걸어간 길을 비슷하게라도 보여준 시인은 없다. 그가 명실상부하게 한국문학의 최정상이자. 믿기 어려우면, 그를 읽어 보라. 그는 우리 동국대학의 소중한 보물인 동시에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마음의 문화재'이다.

중앙도서관 지하 맨 아래층 인문과학실에 그의 유품이 소장된 방이 있다. '미당문고'다. 2000년 작고 이후에, 자택에 있던 소중한 유품들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육필 노트를 비롯한 유품 1만 점 이상 스스로가 모교를 위해 노래한 시 구절 속 '영원 속의 가장 후미진 서재'에서 동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 위클리 동악문화

## 세익스피어의 가락이 남산에 울려 퍼진다

서울 남산 국악당 · 극단 목화 공동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 오는 24일까지 공연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마당놀이로?’

무르익어가는 가을, 세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남산에서 우리의 무대 언어로 흥겹게 울려 퍼진다. 세종문화회관의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음악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난 달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약 한달 간 공연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우리 몸짓과 장단(長短), 가락이 어우러져 재탄생 되었다.

또한 공연 속에 녹아 있는 4·4조의 어법과 신명나는 장단은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저절로 흥에 취하게끔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수없이 재탄생되는 작품이다. 하지만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국 전통의 정서를 반영하고 우리의 언어로 풀어 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해진다. 또한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오랫동안 서로 반목(反目)해온 몬테규기의 아들 로미오와 캐플릿가의 딸 줄리엣이 만나 한눈에 반하는 장면부터 로미오가 단검을 뽑아 자살하는 순간까지 엄숙에 실어도 손색없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장면이 가득하다.

특히 서울남산국악당의 돌출(突出)된 무대는 16세기의 세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초연하던 무대와 흡사해 관객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배우들과 호흡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람객들에게 막걸리를 나눠 주는 등 잔치 및 뒤풀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자막을 제공 해 추석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995년 초연(初演)이후로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찬사(讚辭) 속에 매 공연 새롭게 거듭났다. 또한 동아연극상 및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올해의 우수공연,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3에 선정돼 호평(好評)을 받기도 했다.

각색과 연출은 목화 레퍼터리 컴퍼니의 오태석이 맡았으며 가격은 청소년 2만원 일반 3만원, 30명이상 관람할 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15,000원의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백성기 기자 amy@dongguk.edu



▲기간 : 9.21~10.24 ▲시간 : 화, 금 20:00 토, 일 15:00 ▲가격 : 청소년 20,000원 일반 30,000원

윤재웅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찾아 <9> 영화감독 양운호 동문

# 묵묵히 기다린다, 내 생애의 그랑프리를

1992년 데뷔작 '가변차선'을 시작으로 2010년 '그랑프리'까지. 대한민국 영화계를 설 새 없이 누비는 것도 모자라 KBS 드라마 '아이리스'로 한국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열었던 연극영화과 양운호 동문. 총 13개의 장편작품을 거치면서 걸어온 그의 영화 인생과 우리대학 연극영화과의 추억에 대해 들어봤다.

학창 시절부터 모든 학예회와 축제 무대에 배우로 혹은 연출가로 연극을 올렸던 소년. 타인과의 소통과 자기표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소년은 어느덧 영화감독의 꿈을 품게 된다.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진학하여 모진 뜻이 연극과 영화에만 몰두했던 그 시절은 영화감독의 꿈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꿈을 품고 묵묵히 걸어 나간다.

### 환상적인 영화를 꿈꾸다

영화감독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일까. 양운호 동문의 영화는 '조합(組合)'이다. 양

동문은 시나리오, 연출, 연기 그리고 음향과 조명, 미술 등등 수많은 장르의 예술이 한데 모여 영화라는 종합예술을 이룩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감독으로써의 희열(喜悅)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영화는 사람의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양 동문. 각 분야에서 애스인 사람들이 저마다 최적의 컨디션일 때 함께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는 얼마나 환상적(幻想的)일까. "때론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꿈을 꾸다. 예술과 사람이 모인 환상적인 조합을 찾는 꿈" 양 동문의 이번 작품 또한 훌륭한 조합이었다. '그랑프리'는 절친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작업이었다는 양 동문은 "10년 지기인 양동근과 '아이리스'로 가까워진 김태희가 함께하고 내 고향인 제주도의 품 안에서 일했기에 이보다 더 편할 수 없었다"고 최근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개(公開)하기도 했다.

### 스승과 선배가 이끌어준 영화

양운호 동문이 우리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다.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 먹고 여러 대학의 연극영화과를 알아보다 우연히 고등학교 12년 선배이자 연극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 '고인배' 선배를 만난 것. 양 동문은 "당시 고인배 선배의 권유(勸誘)로 우리대학에 지원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연극인으로써 내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며 자신과 떠들썩한 그 선배는 지금까지도 양 동문을 이끌어주는 가장 소중한 이라고 선배와의 인연을 밝혔다.

당시 우리대학 연극영화과에선 한국영화의 거목(巨木)인 유현목 감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양 동문은 유현목 감독을 '사부'라 칭하면서 자신이 영화를 만들어 오는 것의 밑거름을 주신 분이라 소개(紹介)했다. "학창시절 유현목 감독님과 편집실에서 함께 밤도 많이 새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 질 수 있었다"며 유 감독의 추억을 떠올린 양 동문은 "사부님으로부터 성실과 노력, 그리고 학구열을 그대로 받은 것 같다"고 잊을 수 없는 사제지간의 정(情)을 회상(回想)했다.

고인배 선배와 유현목 감독 외에도 양 동문이 영화감독으로써의 소양(素養)을 구축(構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이들이 있다. 우리대학에서 함께 연극과 영화공부를 했던 배우 박신양, 김유석 그리고 김혜수가 그들이다. 당시 우리대학은 영화보다는 연극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양 동문과 더불어 박신양, 김유석은 유별나게 영화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 연극영화과라도 관심사에 따라 꽤나 나뉘었는데 우리 셋은 유일한 영화 파(派)였다"며 양 동문은 그 때의 학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양 동문은 "혜수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이미 스타였지만 학내 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작품 활동 시 도움을 청하면 받겠고 나서서 들어주었다"며 김혜수의 의리있는 품성을 칭찬하기도 했다. 훗날 박신양은 양 동문의 장편 데뷔작인 '유리'로 함께 데뷔하게 된다.

### "바보를 이길 천재는 없다"

'사부'인 유현목 감독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면 굳어짐 자기 길을 가는 똑심이 바로 그것이다. 양 동문은 자신의 첫 장편 영화 '유리'에 나오는 대사 한 구

절을 예를 들며 말했다. "의심(疑心)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길에 대해서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나는 한 순간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 이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는 양 동문. "재능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한 걸음 가다 옆으로 새고, 두 걸음 가다 옆으로 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처럼 재능 없는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앞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무기(武器)다" 바보를 이길 천재는 없다는 말처럼 오로지 자신의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양 동문. 그에게서 그 믿음의 진중(鎭重)한 무게가 느껴졌다.

스무 살 때부터 10년 단위로 인생 계획을 세워왔다는 양운호 동문. 스무 살 쫓내기 때의 10년 후 계획은 '칸 영화제'에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10년 후, 양 동문은 '유리'로 칸 영화제에 진출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세운 계획은 무뎠이었을까. 바로 대중영화감독으로써 무엇 서는 것이다. 영화는 본디 대중 예술이니만큼 대중과의 소통(疏通)이 중요하다는 것이 양 동문의 신념(信念)이다. 때문에 서른 살이 넘으면서부터 양 동문은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에 주력(主力)했다. "15년째 대중이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20년 안에는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양 동문의 말에서 그의 계속될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천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니 단명(短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인 양운호 동문. "뽀족치 않고 공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승부가 찾아올 것이다"라며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5년 안에 대중영화 감독으로써의 승부를 보고 싶다"는 양 동문의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 프로필

△출생 1966년 11월 11일 △학력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악역 가변차선(92년 작), 아담이 눈물 맺(93년 작), 말미잘(95년 작), 유리(96년 작), 미스터 콘돌(97년 작), 짱(98년 작), 화이트 발레타인(99년 작), 리베라 메(00년 작), 바람의 파이터(04년 작), 홀리데이(05년 작), 가면(07년 작), 아이리스(09년 작), 그랑프리(10년 작), 아이리스-극장판(10년 작) △수상경력 92년 '가변차선'으로 부산 동백 영화제 대상, 금관 영화제 대상, 신영 영화제 대상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10년 8월 14일 ~ 2010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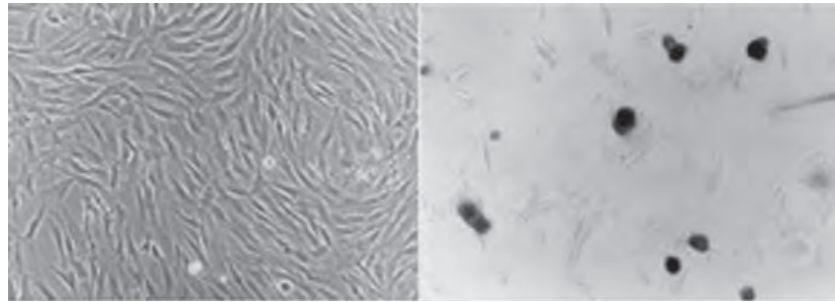
#### 정향기금

한국장학재단(43,6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10,000만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북부(5,000만원), (제)삼성공학재단(3,283만5천원), (제)경주장학재단(2,874만1천원), (제)아산사회복지재단(1,152만7천원), 영애장학회(979만1천원), (제)한국지도자육성재단(851만4천원), 함태호(816만2천원), 동국회교원사회(대표)왕인조한의원(800만원), 한국교육진흥원(605만4천원), 장옥수(458만7천원), 최경기(457만9천원), 김용길(426만원), 산학협동재단(400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400만원), 송동진(370만원), 박상범(353만원), 허영스님(348만2천원), 덕영재단(348만2천원), 김봉수(347만4천원), 최용환(300만원), 경동총합재단(300만원), 혜산스님(300만원), 민용기(293만4천원), 박신양(228만9천원), 박정국(214만원), 불자교수회(200만원), 선인장학재단(200만원), (제)국제언어학장학회(200만원), (제)한국사(200만원), (제)하림장학재단(155만원), 최순영(134만4천원), 송민규(154만9천원), 한진수(153만4천원), 전순표(150만원), (제)하림장학재단(150만원), 김경철(100만원), 수인스님(100만원), 장남표(100만원), 이규정(100만원), 유영준(94만원), 박윤희(94만원), 이병영(94만원), 김봉환(94만원), 조의민(84만원), 이호(84만원), 홍성호(80만원), 이진규(79만2천원), 김계현(78만1천원), 정승호(74만원), 김기원(74만원), 이종태(74만원), 이희수(74만원), 장장근(74만원), 이혜은(74만원), 임지(74만원), 서관재(74만원), 김일봉(74만원), 민종석(74만원), 김민재(74만원), 김명욱(74만원), 이준서(74만원), 정용상(74만원), 양동준(74만원), 이광근(66만2천원), 이득순(66만원), 김성준(60만원), 심산스님(60만원), 동경숙(주)(60만원), 박희과(84~87학번(60만원), 박정신(56만3천원), 유은우(56만2천원), 김용환(50만원), 김광호(50만원), 정영훈(50만원), 우

학스님(50만원), 김연희(50만원), 혜성문화재단(50만원), 김준태(46만2천원), 김용표(46만2천원), 김근우(46만2천원), 최용림(46만2천원), 강호덕(46만2천원), 김대룡(46만2천원), 윤영도(46만2천원), 김승용(46만2천원), 이시영(46만2천원), 조종홍(46만2천원), 이상원(46만2천원), 정상진(46만2천원), 정인원(46만2천원), 최용진(46만2천원), 김득영(40만원), 상보스님(40만원), 송관수(40만원), 황산스님(40만원), (주)호태인턴타일(40만원), 임성우(39만2천원), 이명훈(39만2천원), 박인성(39만2천원), 최창영(39만원), 최정호(32만원), 박문기(30만원), 고동민(30만원), 황성근(30만원), 유광호(26만원), 윤재호(26만원), 허진표(25만원), 류인수(22만원), 이상우(22만원), 여익구(20만원), 이성철(20만원), 박해구(20만원), 고재식(20만원), 이강식(20만원), 문인성(20만원), 이상우(20만원), 김진현(20만원), 김중원(20만원), 김재현(20만원), 신영선(20만원), 조봉민(20만원), 김유혁(20만원), 강태현(20만원), 조수남(20만원), 최순호(20만원), 도원철철(주)(20만원), 박신수(20만원), 범안스님(20만원), 남진스님(20만원), 지현스님(20만원), 최상근(20만원), 박광호(20만원), 범상스님(20만원), 김대봉(14만원), 한영환(12만5천원), 방승호(12만원), 김종윤(12만원), 도담스님(12만원), 김경수(10만원), 최광일(10만원), 신기홍(10만원), 김정훈(10만원), 민승희(10만원), 황종성(10만원), 김병호(10만원), 김민(10만원), 이상일(10만원), 최민수(10만원), 최인수(10만원), 박명관(10만원), 정창환(10만원), 김명실(10만원), 민창식(10만원), 오진도(10만원), 김봉수(10만원), 김경기(10만원), 박만규(10만원), 김정성(10만원), 주원철(10만원), 최경수(10만원), 김명원(10만원), 박홍수(10만원), 이규정(10만원), 범의스님(10만원), 김병중(10만원), 김기정(10만원), 김민원(10만원), 장성근(10만원), 조남준(10만원), 홍선기(10만원), 김효호(10만원), 신종수(10만원), 윤용섭(10만원), 최홍환(10만원), 임세희(10만원), 박은철(10만원), 김성주(10만원), 장시기(10만원), 이창우(10만원), 오수환(10만원), 송승원(10만원), 조수경(10만원), 우철희(10만원), 이승진(10만원), 김태형(10만원), 황병경(10만원), 윤동규(10만원), 김상우(10만원), 안양규(10만원), 정현년(10만원), 박사빈(10만원), 노현규(10만원), 김영희(10만원), 황재희(10만원), 송원스님(10만원), 요진식(10만원), 김성강(10만원), 홍상규(10만원), 권경희(10만원), 손희주(10만원), 박정호(10만원), 김병주(10만원), 장원희(10만원), 전용수(10만원), 김병우(10만원), 김은희(10만원), 김강주(10만원), 이재정(10만원), 박철원(10만원), 최순수(10만원), 조인수(10만원), 범상스님(10만원), 이정남(10만원), 최기환(10만원), 안석원(10만원), 서혜원(10만원), 홍우스님(10만원), 노태영(10만원), 도서훈(홍정호스님(10만원), 김홍수(10만원), 이원길(10만원), 김필원(10만원), 만우스님(10만원), 노태영(10만원), 최태현(10만원), 김기호(10만원), 김희영(10만원), 김민원(10만원), 이혜원(10만원), 안영남(10만원), 오원우(8만원), 김희수(8만원), 이원주(8만원), 조용현(8만원), 최필기(7만원), 이희정(7만원), 홍종희(6만원), 김경원(6만원), 신익희(6만원), 임연스님(6만원), 이상진(6만원), 박윤서(6만원), 유현필(6만원), 이주석(6만원), 최순호(6만원), 조수익(6만원), 정병경(6만원), 김홍도(6만원), 박두현(6만원), 구경도(6만원), 박병서(6만원), 장봉현(6만원), 김태현(6만원), 이태희(6만원), 고홍식(6만원), 임가록(6만원), 박진수(6만원), 김병국(6만원), 장동진(6만원), 이경원(6만원), 유진원(6만원), 이병철(6만원), 손세호(6만원), 김학원(6만원), 김경원(6만원), 민승희(6만원), 이홍수(6만원), 조진원(6만원), 정용준(6만원), 최우석(6만원), 천우진(6만원), 박재준(6만원), 신용재(6만원), 황자(6만원), 민상수(6만원), 이재명(6만원), 권혁(6만원), 박정숙(6만원), 이병재(6만원), 이태희(6만원), 한경미(6만원), 신준호(6만원), 조순호(6만원), 허준(6만원), 장만희(6만원), 이주형(5만원), 조재정(5만원), 김승호(5만원), 장진(5만원), 하완호(5만원), 정영환(5만원), 김남영(5만원), 김우태(5만원), 박상우(5만원), 송영철(5만원), 김호선(5만원), 김진우(5만원), 김승우(5만원), 박연(5만원), 이두이(5만원), 김희원(5만원), 최우성(5만원), 김여옥(5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호(4만원), 김상일(4만원), 박동민(4만원), 이효진(4만원), 신지영(4만원), 고하배(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권민태(4만원), 김유현(4만원), 하기복(4만원), 김철용(4만원), 임종민(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재(4만원), 이신진(4만원), 김태성(4만원), 사제희(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혜은(4만원), 오선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이(4만원), 박광원(4만원), 정향관(4만원), 박기린(4만원), 유상숙(4만원), 남진식(4만원), 김기주(4만원), 우철희(4만원), 김병수(4만원), 김혜정(4만원), 이현규(4만원), 김경일(4만원), 이정우(4만원), 민은기(4만원), 김태현(4만원), 배학원(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신호스님(4만원), 원다스님(4만원), 강장자(4만원), 권규준(4만원), 유우석(4만원), 김혜동(4만원), 김기수(4만원), 김준(4만원), 임정일(4만원), 김철호(4만원), 문진식(4만원), 윤진아(4만원), 박종희(4만원), 이상호(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인규(4만원), 지경숙(4만원), 오경원(4만원), 조은희(4만원), 윤정희(4만원), 서희숙(4만원), 이미옥(4만원), 김병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전규원(4만원), 김남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오영희(4만원), 김명숙(4만원), 김경자(4만원), 김경아(4만원), 김필원(4만원), 최기환(4만원), 유준(4만원), 서은희(4만원), 신경호(4만원), 원현희(4만원), 송양희(4만원), 안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고혜자(4만원), 김경선(4만원), 박지영(4만원), 김승희(4만원), 김희정(4만원), 김창기(4만원), 서일용(4만원), 김승호(4만원), 김경원(4만원), 유영희(4만원), 유우자(4만원), 율봉주(4만원), 이경원(4만원), 김윤희(4만원), 이병수(4만원), 이복(4만원), 박두현(4만원), 구경도(4만원), 박병서(4만원), 장봉현(4만원), 김태현(4만원), 이태희(4만원), 고홍식(4만원), 임가록(4만원), 박진수(4만원), 김병국(4만원), 장동진(4만원), 이경원(4만원), 유진원(4만원), 이병철(4만원), 손세호(4만원), 김학원(4만원), 김경원(4만원), 민승희(4만원), 이홍수(4만원), 조진원(4만원), 정용준(4만원), 최우석(4만원), 천우진(4만원), 박재준(4만원), 신용재(4만원), 황자(4만원), 민상수(4만원), 이재명(4만원), 권혁(4만원), 박정숙(4만원), 이병재(4만원), 이태희(4만원), 한경미(4만원), 신준호(4만원), 조순호(4만원), 허준(4만원), 장만희(4만원), 이주형(4만원), 조재정(4만원), 김승호(4만원), 장진(4만원), 하완호(4만원), 정영환(4만원), 김남영(4만원), 김우태(4만원), 박상우(4만원), 송영철(4만원), 김호선(4만원), 김진우(4만원), 김승우(4만원), 박연(4만원), 이두이(4만원), 김희원(4만원), 최우성(4만원), 김여옥(4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호(4만원), 김상일(4만원), 박동민(4만원), 이효진(4만원), 신지영(4만원), 고하배(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권민태(4만원), 김유현(4만원), 하기복(4만원), 김철용(4만원), 임종민(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재(4만원), 이신진(4만원), 김태성(4만원), 사제희(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혜은(4만원), 오선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이(4만원), 박광원(4만원), 정향관(4만원), 박기린(4만원), 유상숙(4만원), 남진식(4만원), 김기주(4만원), 우철희(4만원), 김병수(4만원), 김혜정(4만원), 이현규(4만원), 김경일(4만원), 이정우(4만원), 민은기(4만원), 김태현(4만원), 배학원(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신호스님(4만원), 원다스님(4만원), 강장자(4만원), 권규준(4만원), 유우석(4만원), 김혜동(4만원), 김기수(4만원), 김준(4만원), 임정일(4만원), 김철호(4만원), 문진식(4만원), 윤진아(4만원), 박종희(4만원), 이상호(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인규(4만원), 지경숙(4만원), 오경원(4만원), 조은희(4만원), 윤정희(4만원), 서희숙(4만원), 이미옥(4만원), 김병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전규원(4만원), 김남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오영희(4만원), 김명숙(4만원), 김경자(4만원), 김경아(4만원), 김필원(4만원), 최기환(4만원), 유준(4만원), 서은희(4만원), 신경호(4만원), 원현희(4만원), 송양희(4만원), 안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고혜자(4만원), 김경선(4만원), 박지영(4만원), 김승희(4만원), 김희정(4만원), 김창기(4만원), 서일용(4만원), 김승호(4만원), 김경원(4만원), 유영희(4만원), 유우자(4만원), 율봉주(4만원), 이경원(4만원), 김윤희(4만원), 이병수(4만원), 이복(4만원), 박두현(4만원), 구경도(4만원), 박병서(4만원), 장봉현(4만원), 김태현(4만원), 이태희(4만원), 고홍식(4만원), 임가록(4만원), 박진수(4만원), 김병국(4만원), 장동진(4만원), 이경원(4만원), 유진원(4만원), 이병철(4만원), 손세호(4만원), 김학원(4만원), 김경원(4만원), 민승희(4만원), 이홍수(4만원), 조진원(4만원), 정용준(4만원), 최우석(4만원), 천우진(4만원), 박재준(4만원), 신용재(4만원), 황자(4만원), 민상수(4만원), 이재명(4만원), 권혁(4만원), 박정숙(4만원), 이병재(4만원), 이태희(4만원), 한경미(4만원), 신준호(4만원), 조순호(4만원), 허준(4만원), 장만희(4만원), 이주형(4만원), 조재정(4만원), 김승호(4만원), 장진(4만원), 하완호(4만원), 정영환(4만원), 김남영(4만원), 김우태(4만원), 박상우(4만원), 송영철(4만원), 김호선(4만원), 김진우(4만원), 김승우(4만원), 박연(4만원), 이두이(4만원), 김희원(4만원), 최우성(4만원), 김여옥(4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호(4만원), 김상일(4만원), 박동민(4만원), 이효진(4만원), 신지영(4만원), 고하배(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권민태(4만원), 김유현(4만원), 하기복(4만원), 김철용(4만원), 임종민(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재(4만원), 이신진(4만원), 김태성(4만원), 사제희(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혜은(4만원), 오선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이(4만원), 박광원(4만원), 정향관(4만원), 박기린(4만원), 유상숙(4만원), 남진식(4만원), 김기주(4만원), 우철희(4만원), 김병수(4만원), 김혜정(4만원), 이현규(4만원), 김경일(4만원), 이정우(4만원), 민은기(4만원), 김태현(4만원), 배학원(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신호스님(4만원), 원다스님(4만원), 강장자(4만원), 권규준(4만원), 유우석(4만원), 김혜동(4만원), 김기수(4만원), 김준(4만원), 임정일(4만원), 김철호(4만원), 문진식(4만원), 윤진아(4만원), 박종희(4만원), 이상호(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인규(4만원), 지경숙(4만원), 오경원(4만원), 조은희(4만원), 윤정희(4만원), 서희숙(4만원), 이미옥(4만원), 김병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전규원(4만원), 김남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오영희(4만원), 김명숙(4만원), 김경자(4만원), 김경아(4만원), 김필원(4만원), 최기환(4만원), 유준(4만원), 서은희(4만원), 신경호(4만원), 원현희(4만원), 송양희(4만원), 안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고혜자(4만원), 김경선(4만원), 박지영(4만원), 김승희(4만원), 김희정(4만원), 김창기(4만원), 서일용(4만원), 김승호(4만원), 김경원(4만원), 유영희(4만원), 유우자(4만원), 율봉주(4만원), 이경원(4만원), 김윤희(4만원), 이병수(4만원), 이복(4만원), 박두현(4만원), 구경도(4만원), 박병서(4만원), 장봉현(4만원), 김태현(4만원), 이태희(4만원), 고홍식(4만원), 임가록(4만원), 박진수(4만원), 김병국(4만원), 장동진(4만원), 이경원(4만원), 유진원(4만원), 이병철(4만원), 손세호(4만원), 김학원(4만원), 김경원(4만원), 민승희(4만원), 이홍수(4만원), 조진원(4만원), 정용준(4만원), 최우석(4만원), 천우진(4만원), 박재준(4만원), 신용재(4만원), 황자(4만원), 민상수(4만원), 이재명(4만원), 권혁(4만원), 박정숙(4만원), 이병재(4만원), 이태희(4만원), 한경미(4만원), 신준호(4만원), 조순호(4만원), 허준(4만원), 장만희(4만원), 이주형(4만원), 조재정(4만원), 김승호(4만원), 장진(4만원), 하완호(4만원), 정영환(4만원), 김남영(4만원), 김우태(4만원), 박상우(4만원), 송영철(4만원), 김호선(4만원), 김진우(4만원), 김승우(4만원), 박연(4만원), 이두이(4만원), 김희원(4만원), 최우성(4만원), 김여옥(4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호(4만원), 김상일(4만원), 박동민(4만원), 이효진(4만원), 신지영(4만원), 고하배(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권민태(4만원), 김유현(4만원), 하기복(4만원), 김철용(4만원), 임종민(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재(4만원), 이신진(4만원), 김태성(4만원), 사제희(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혜은(4만원), 오선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이(4만원), 박광원(4만원), 정향관(4만원), 박기린(4만원), 유상숙(4만원), 남진식(4만원), 김기주(4만원), 우철희(4만원), 김병수(4만원), 김혜정(4만원), 이현규(4만원), 김경일(4만원), 이정우(4만원), 민은기(4만원), 김태현(4만원), 배학원(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신호스님(4만원), 원다스님(4만원), 강장자(4만원), 권규준(4만원), 유우석(4만원), 김혜동(4만원), 김기수(4만원), 김준(4만원), 임정일(4만원), 김철호(4만원), 문진식(4만원), 윤진아(4만원), 박종희(4만원), 이상호(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인규(4만원), 지경숙(4만원), 오경원(4만원), 조은희(4만원), 윤정희(4만원), 서희숙(4만원), 이미옥(4만원), 김병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전규원(4만원), 김남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오영희(4만원), 김명숙(4만원), 김경자(4만원), 김경아(4만원), 김필원(4만원), 최기환(4만원), 유준(4만원), 서은희(4만원), 신경호(4만원), 원현희(4만원), 송양희(4만원), 안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고혜자(4만원), 김경선(4만원), 박지영(4만원), 김승희(4만원), 김희정(4만원), 김창기(4만원), 서일용(4만원), 김승호(4만원), 김경원(4만원), 유영희(4만원), 유우자(4만원), 율봉주(4만원), 이경원(4만원), 김윤희(4만원), 이병수(4만원), 이복(4만원), 박두현(4만원), 구경도(4만원), 박병서(4만원), 장봉현(4만원), 김태현(4만원), 이태희(4만원), 고홍식(4만원), 임가록(4만원), 박진수(4만원), 김병국(4만원), 장동진(4만원), 이경원(4만원), 유진원(4만원), 이병철(4만원), 손세호(4만원), 김학원(4만원), 김경원(4만원), 민승희(4만원), 이홍수(4만원), 조진원(4만원), 정용준(4만원), 최우석(4만원), 천우진(4만원), 박재준(4만원), 신용재(4만원), 황자(4만원), 민상수(4만원), 이재명(4만원), 권혁(4만원), 박정숙(4만원), 이병재(4만원), 이태희(4만원), 한경미(4만원), 신준호(4만원), 조순호(4만원), 허준(4만원), 장만희(4만원), 이주형(4만원), 조재정(4만원), 김승호(4만원), 장진(4만원), 하완호(4만원), 정영환(4만원), 김남영(4만원), 김우태(4만원), 박상우(4만원), 송영철(4만원), 김호선(4만원), 김진우(4만원), 김승우(4만원), 박연(4만원), 이두이(4만원), 김희원(4만원), 최우성(4만원), 김여옥(4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호(4만원), 김상일(4만원), 박동민(4만원), 이효진(4만원), 신지영(4만원), 고하배(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권민태(4만원), 김유현(4만원), 하기복(4만원), 김철용(4만원), 임종민(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재(4만원), 이신진(4만원), 김태성(4만원), 사제희(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혜은(4만원), 오선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이(4만원), 박광원(4만원), 정향관(4만원), 박기린(4만원), 유상숙(4만원), 남진식(4만원), 김기주(4만원), 우철희(4만원), 김병수(4만원), 김혜정(4만원), 이현규(4만원), 김경일(4만원), 이정우(4만원), 민은기(4만원), 김태현(4만원), 배학원(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신호스님(4만원), 원다스님(4만원), 강장자(4만원), 권규준(4만원), 유우석(4만원), 김혜동(4만원), 김기수(4만원), 김준(4만원), 임정일(4만원), 김철호(4만원), 문진식(4만원), 윤진아(4만원), 박종희(4만원), 이상호(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인규(4만원), 지경숙(4만원), 오경원(4만원), 조은희(4만원), 윤정희(4만원), 서희숙(4만원), 이미옥(4만원), 김병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전규원(4만원), 김남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오영희(4만원), 김명숙(4만원), 김경자(4만원), 김경아(4만원), 김필원(4만원), 최기환(4만원), 유준(4만원), 서은희(4만원), 신경호(4만원), 원현희(4만원), 송양희(4만원), 안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고혜자(4만원), 김경선(4만원), 박지영(4만원), 김승희(4만원), 김희정(4만원), 김창기(4만원), 서일용(4만원), 김승호(4만원), 김경원(4만원), 유영희(4만원), 유우자(4만원), 율봉주(4만원), 이경원(4만원), 김윤희(4만원), 이병수(4만원), 이복(4만원), 박두현(4만원), 구경도(4만원), 박병서(4만원), 장봉현(4만원), 김태현(4만원), 이태희(4만원), 고홍식(4만원), 임가록(4만원), 박진수(4만원), 김병국(4만원), 장동진(4만원), 이경원(4만원), 유진원(4만원), 이병철(4만원), 손세호(4만원), 김학원(4만원), 김경원(4만원), 민승희(4만원), 이홍수(4만원), 조진원(4만원), 정용준(4만원), 최우석(4만원), 천우진(4만원), 박재준(4만원), 신용재(4만원), 황자(4만원), 민상수(4만원), 이재명(4만원), 권혁(4만원), 박정숙(4만원), 이병재(4만원), 이태희(4만원), 한경미(4만원), 신준호(4만원), 조순호(4만원), 허준(4만원), 장만희(4만원), 이주형(4만원), 조재정(4만원), 김승호(4만원), 장진(4만원), 하완호(4만원), 정영환(4만원), 김남영(4만원), 김우태(4만원), 박상우(4만원), 송영철(4만원), 김호선(4만원), 김진우(4만원), 김승우(4만원), 박연(4만원), 이두이(4만원), 김희원(4만원), 최우성(4만원), 김여옥(4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호(4만원), 김상일(4만원), 박동민(4만원), 이효진(4만원), 신지영(4만원), 고하배(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권민태(4만원), 김유현(4만원), 하기복(4만원), 김철용(4만원), 임종민(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재(4만원), 이신진(4만원), 김태성(4만원), 사제희(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혜은(4만원), 오선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이(4만원), 박광원(4만원), 정향관(4만원), 박기린(4만원), 유상숙(4만원), 남진식(4만원), 김기주(4만원), 우철희(4만원), 김병수(4만원), 김혜정(4만원), 이현규(4만원), 김경일(4만원), 이정우(4만원), 민은기(4만원), 김태현(4만원), 배학원(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신호스님(4만원), 원다스님(4만원), 강장자(4만원), 권규준(4만원), 유우석(4만원), 김혜동(4만원), 김기수(4만원), 김준(4만원), 임정일(4만원), 김철호(4만원), 문진식(4만원), 윤진아(4만원), 박종희(4만원), 이상호(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인규(4만원), 지경숙(4만원), 오경원(4만원), 조은희(4만원), 윤정희(4만원), 서희숙(4만원), 이미옥(4만원), 김병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전규원(4만원), 김남수(4만원), 권혁(4만원), 이순남(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오영희(4만원), 김명숙(4만원), 김경자(4만원), 김경아(4만원), 김필원(4만원), 최기환(4만원), 유준(4만원), 서은희(4만원), 신경호(4만원), 원현희(4만원), 송양희(4만원), 안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고혜자(4만원), 김경선(4만원), 박지영(4만원), 김승희(4만원), 김희정(4만원), 김창기(4만원), 서일용(4만원), 김승호(4만원), 김경원(4만원), 유영희(4만원), 유우자(4만원), 율봉주(4만원), 이경원(4만원), 김윤희(4만원), 이병수(4만원), 이복(4만원), 박두현(4만원), 구경도(4만원), 박병서(4만원), 장봉현(4만원), 김태현(4만원), 이태희(4만원), 고홍식(4만원), 임가록(4만원), 박진수(4만원), 김병국(4만원), 장동진(4만원), 이경원(4만원), 유진원(4만원), 이병철(4만원), 손세호(4만원), 김학원(4만원), 김경원(4만원), 민승희(4만원), 이홍수(4만원), 조진원(4만원), 정용준(4만원), 최우석(4만원), 천우진(4만원), 박재준(4만원), 신용재(4만원), 황자(4만원), 민상수(4만원), 이재명(4만원), 권혁(4만원), 박정숙(4만원), 이병재(4만원), 이태희(4만원), 한경미(4만원), 신준호(4만원), 조순호(4만원), 허준(4만원), 장만희(4만원), 이주형(4만원), 조재정(4만원), 김승호(4만원), 장진(4만원), 하완호(4만원), 정영환(4만원), 김남영(4만원), 김우태(4만원), 박상우(4만원), 송영철(4만원), 김호선(4만원), 김진우(4만원), 김승우(4만원), 박연(4만원), 이두이(4만원), 김희원(4만원), 최우성(4만원), 김여옥(4만원), 김경남(4만원), 채명식(4만원), 유일하(4만원), 김우

# 모낭세포 치료기술 중국 특허 취득

## 박정극 교수팀, 라이프리버사와 10여년 간 기술개발



▲ 증식배지에서 모낭세포 사진. ▲ 형성된 모낭세포 유사조직.

우리대학 '조직공학 및 과동생명공학 연구소'가 줄기세포치료제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라이프리버'와 산학협력(協力)을 통해 공동 개발한 '모낭세포를 이용한 대머리 치료기술'이 지난 27일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번 중국에서의 특허는 한국, 영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중국은 15억 명에 달하는 인구에 의해 탈모치료시장 전망(展望)이 밝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직공학 및 과동생명공학 연구소' 박정극 소장(의생명공학과 교수)은 "현재 탈모치료 시장

는 총 10년에 걸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대머리 치료 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다.

'모낭세포를 이용한 대머리 치료 기술'은 두피속에 있는 모낭에서 모발의 성장 조절 물질을 분비하여 모발의 성장을 담당하는 세포인 모낭세포를 채취해,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培養)한 후 대량 증식해 다시 모낭으로 재구성하여 환자모발에 이식하는 기술이다. 모낭 재구성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모낭세포와 표피 보호 역할을 하는 외측모근세포의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우리대학이 중국 특허를 취득한 부분은 증식한 모낭세포를 다시 모낭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기술은 기존 탈모치료방법이 가지던 부작용을 보완하고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의 전임 연구원인 유보영 박사는 "기존 탈모치료약은 여성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고, 자가모발이식수술은

3번의 시술 횟수제한이 있다"며 "이번 모낭세포치료기술은 이러한 한계점과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모낭세포를 이용한 대머리 치료기술' 연구는 전 임상시험 준비단계에 있다. 향후 2년간 전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2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입증(立證)되면 식약청에서 최종 시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공식적인 시장상용화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 이 기술의 상용화까지는 총 4-5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시장 상용화가 진행된다면, 우리대학과 라이프리버사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라이프리버사 이소은 박사는 "임상실험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용화에 성공하면, 그 시장 파급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농식품포장연구센터 70억 수주(受注)

##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 지난달 16일 개관



▲ 첨단 포장연구기술을 설명하는 이승주(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지난 7월 28일, 우리대학 '지능형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가 정부로부터 향후(向後) 7년간 매년 10억씩, 총 70억 원의 연구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지능형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는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첨단 농식품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능형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첨단 농식품 융복합 연구란, IT(Information Technology)와 NT(Nano Technology)기술을 과학 농업에 융복합시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말한다. 관련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포장에 담긴 식품의 상태나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포장재 자체(自體)로 음식의 신선도를 높이는 기능까지 가능하다.

현재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이승주 교수는 "연구 진행 중인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도입기를 지난 상태"라며 "지능형 포장의 기술개발과 제품화, 전문 인력양성을 선도한다면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생명공학과 이승주 교수가 지도를 맡고 있는 '지능형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는 지난 16일 문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개원이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첨단(尖端) 농식품 융복합 기술과제를 수행할 국내 첫 '농업연구센터'(ARC)로 선정됐다.

'지능형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는 현재 개원 초기(初期)단계이며, 지능형 포장 연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포장 식품의 품질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지시계, IT 융합형 지시계 및 운영 시스템, 나노기술기반 신선도 제어(制御) 포장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계획, 진행 중인 연구 개발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해 경남대, 목포대, 세종대, 우송대 등 5개의 대학이 협력(協力)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 3M을 포함 11개 기업체가 사업에 참여 중이다.

한편 이번 수주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전환기를 맞아 연구소에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첨단 융복합 관련 연구를 미리 진행한 것이 국내 최초의 농업연구센터로 선정된 계기"라고 사업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는 현재 7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확보(確保)된 상태이며, 7년 뒤 사업성공여부에 따라 3년 간 30억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근대와 불교 관계규명 통한 미래상 제시

##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 세미나 개최

불교문화연구원은 2005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 12월~2014년 11월 까지 총9년에 걸쳐서 '아시아의 근대 불교문화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시아의 근대와 불교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시아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연구성과 발표의 일환으로서, 불교문화연구원은 9월30일 학림관 210호에서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육망의 주제로서 개인과 상좌부불교의 무아론(無我論)'(양정연 교수) '베트남근대화에 미

친 불교의 영향'(박금표 교수) '한국 근현대신문에 나타난 불교의례 연구'(한상길 교수)이다.

우선 양정연 교수는 "근대적 의미의 개인(individual)은 육망 특히 소유욕을 가진 존재로 간주되고 용인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개인간의 충돌과 대립을 낳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상좌부 불교의 무아론을 제시하였다. 불교의 무아는 나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무아'가 아닌 '절대적 무아'이며, 불교수행을 통해 육망과 소유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양교수의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청정도론(淸淨道論)'의 칠청정(七淸淨)을 가지고 무아를 고찰하는 데

특징이 있다.

또, 박금표 교수는 1963년 베트남 사이공 정부의 대불교(對佛敎)정책이 불교도의 항쟁으로 확대되고, 결국 쿠데타로 이어져 지엘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사실에 주목하여, 그 과정 아래 1963년 6월 11일 발생한 티 팡 특 스님의 분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박교수는 "티 팡 특 스님을 정치 승려로 보아 정치적 목망이 표출된 자살로 규정하는 것은 불교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시각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분신은 단순한 자살과는 구별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불교도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거나, 공산주의자들 일부가 불교도 항쟁에 가담했다고 하여 불교도 항쟁을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냉전 논리에 치우친 해석에 불과함을 논증하였다. 한상길 교수는 근대에 있어 불교개혁으로서의 의례폐지론과 '석문의범' 등의 의례집 간행, 그리고 근현대신문의 기사를 검토하여 "불교의례는 근대사회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불교대화라는 두 가지 순기능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비록 전도제 등의 일부 의례는 일제하에서 총독부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례는 근대불교를 대중화하고 문화전통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정영식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골로 만든...**

**동옥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옥식품 부산 와룡관자연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인준)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자매품**

**Choco DONGOKGO**

**초코 동옥고**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에게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옥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와 "초코동옥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스펙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20대들에게 보내는 또 다른 20대들의 비망록

# 꿈 위에 현실을 놓을 것인가, 현실 위에 꿈을 놓을 것인가

취업의 기로에 놓인 많은 대학생들은 현실과 꿈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한 번씩 돌아보게 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현실적인 여건보다는 자신의 꿈을 좇고 있는 20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기획을 통해 현실에 치여 묻어두거나 잊어버린 꿈을 반추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토회에서 제3세계 사람들에게 교육봉사하는 자원 활동가 송지홍 씨

## ‘나부터 변하자’ 결심 후 교사직 그만두고 봉사활동에 참여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장벽을 부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세상과 만날 수 없다” 자원 활동가. 제 3세계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 교육봉사를 하거나 구호 물품을 전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고통 받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송지홍 씨는 현재, 정토회에서 자원 활동가로써의 삶을 살고 있다.

정토회에서 모든 문제와 행복은 ‘나’로부터 나온다. 송지홍 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내면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자 그 자신의 마음과 조우(遭遇)할 수 있었다. “그제서야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장벽이 얼마나 두텁고 높았는지 깨달았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음을 느꼈죠.”

수입이라고는 한 달에 5만원 남짓. “처음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요. 제 꿈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며 송지홍 씨의 꿈은 무엇일까. 그는 고3 때까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입시철이 되자 세상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방황했다. 가고 싶은 학과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득 억울해졌어요. 12년을 학교에 쏟았지만 학교는 제게 꿈 하나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

에.” 그는 도대체 학교가 해준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때, 목표가 정해진 거죠. 이 나라의 교육을 바꿔 보겠다는 것.” 적어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찾아줄 수 있는 교육을 펼쳐보겠다는 결심으로 재수를 해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 수업은 흥미로웠으나 허전했다. “탁상공론(卓上空論)만으로 진정한 교육

“ 혼자 아파하기 보다, 공동체에 마음 열고 함께 연대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

혁명을 이룩할 수 있을 지 고민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화두(話頭)의 연속이었죠. 또 다시 방황과 선택의 길에 맞닥뜨렸어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할 지 현장에서 나갈지 고민 끝에 결정했다. 목동의 한 사립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일을 시작했다.

“세상은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 현장에서 얻은 것은 하나였다. 무기력(無氣力). 교사들도 학생들도 모두 무기력했다. 그 속에 있으면 그 자신 또한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교사로 재직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이 터졌다. 그 학교의

한 교사가 임시학원의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경찰에 포착(捕捉)된 것이다.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해당 교사는 다음 날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학교 분위기에 떠날 때가 됐음을 감지(感知)했다. “학교를 나오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켜 보았어요. 결국 저도 똑같았더라고요. 서울대라는 학벌과 교사라는 안정적 직업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스펙으로 세상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아온 거죠.” 이 나라의 교육을 바꿔보겠다 자신했지만 그 자신은 이미 실전할 수 없는 몸이었다.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인지(認知)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부터 변하자.’ 그는 자신에게 실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지 찾았다. “문득, 대학 시절 다녀왔던 ‘인도 선제수련’이 떠올랐어요. 삶은 그대로 행복하다던 그곳의 가치관이 어찌나 간절하게 그림던지.” 정토회로 갔다. 무모했지만 그 자신에게 힘을 줄 것 같았다.

“당신은 멋진 사람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인터뷰가 있기 하루 전 날, 송지홍 씨는 후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확기 너머로 후배 녀석이 울먹이면서 말하더라. 평화재단 사무실에 자리 하나 내

줄 수 없겠냐고. 더 이상 현실을 견딜 수 없다고. 명문대를 거쳐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다.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현실의 무게를 감당치 못한 채 우는 후배를 보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위치와 환경에 상관없이 청춘들은 고민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개인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죠. 그러나 모든 아픔은 관계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개인의 문제를 사회 속으로 끄집어 내야해요.”

개인을 공동체에 열고 문제를 공동화하며 연대(連帶)를 이끌어야한다. 문제와 아픔은 함께 푸는 것이다. 혼자 아파하지 말라. 나의 문제는, 그리고 당신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의 신념이다.

송지홍 씨는 말해주고 싶다. 자신이 가는 곳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당신은 엄청난 자질을 지닌 사람이라고. 또 보여주고 싶다.

부와 명예, 그리고 안정성으로 집약되는 이 시대의 목표를 맹목적으로 좇고 있는 청춘들에게. 당신이 쫓기듯 걸어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다고.

때로는 삶의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젊음이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 미약하고 고단하지만 다른 길을 걷는 청춘이 분명히 있다고. 알려주고 싶단다. 내가, 그렇다고.

김보해 기자 boo@dongguk.edu

웹툰 작가 서나래 씨

## 나의 청춘은 마음 가는 대로 펜 끝 닿는 대로

“지금 아니면 못할 일들. ‘젊음’이라는 용기를 업고 마음껏 펼쳐보길”

확연(確然)한 꿈은 없었다. 단지 만화가 좋았다. 고3 시절에도 참고서 아래로는 만화책을 펼쳤다.

인터넷 보급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시절 웹에 만화를 연재하는 일이 시작됐다. ‘웹툰(Webtoon)’의 등장인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웹툰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자랐어요. 그 때 ‘만화가’라는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도 같이 보았죠.”

2004년 여름의 일이다.

대학교 2학년 시절, 조금씩 그려왔던 만화를 들고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열었다. 친구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를 해줬다. 곧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웹툰 2세대’의 첫 주자를 알리는 축포(祝砲)가 들렸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생소(生疎)한 ‘웹툰’을 업(業)으로 삼기까지 서나래 씨도 수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나온 답은 한 가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굳게 믿어요.” 그녀는 휴학을 한 뒤 잠시 경험했었던 회사 생활에서 이미 직장 다니는 것은 자신과 맞지 않음을 느꼈다고 한다.

한창 인터넷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던 시절, 서나래 씨에게 한 제안이 들어왔다. 연세대 내에 있는 ‘MUNC’라는 단체로

부터 가입 권유를 받은 것이다. ‘MUNC’는 학내 디자인에 능한 학생들이 모여 만든 ‘기획자 집단’이다. 이곳 구성원들은 수익을 창출(創出)하는 동시에 재능을 한껏 발휘(發揮)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서나래 씨 또한 ‘MUNC’의 멤버로써 학내의 디자인 관련 행사를 도맡

“ 경제적 이익도 명성도 보장되지는 않지만,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

았다. 홈페이지 오픈과 ‘MUNC’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서나래 씨.

그녀는 “만화와 디자인이 자기가 갈 길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일이 더 재밌어졌어요. 정기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수익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며 “때로는 막대한 창작의 길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나래 씨는 첫 연재를 시작했던 2004

부터 만화와 함께하는 쉴 틈 없는 일상을 보냈다.

그러다 2009년, 그녀의 첫 슬럼프가 왔다.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지쳤었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도 싶었다. 마침 여행기를 써보는 것이 오랜 꿈 아니었던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이 이번에도 망설임이란 없었다. 당장 네팔 행 티켓을 끊었다. ‘남이 사는 이야기’의 연재를 중단하고 올해 3월부터는 대학생들의 로맨스 이야기인 ‘남에게 와요’를 선보였다. 경험담과 허구가 섞인 첫 서사적인 만화였다.

여행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자 ‘기승전결(起承轉結)’을 고루 갖춘 스토리를 가진 만화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스토리를 가진 만화는 서나래 씨에게 맞지 않았다. 작품 자체는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다시는 서사가 있는 만화는 그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서태지의 열성팬으로도 유명한 그녀는 지난 8월 서태지 컴퍼니 측으로부터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웹툰 연재를 제의 받았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다.’라는 말의 현실화였죠.”

그녀는 그 제의를 받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OK’했다고. 그 순간 자신이 만화를 그린다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잊지 마라. 그 누구에게라도 20대는 단 한번 뿐임”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말한다. 잠실도 햇빛거리도 20대가 아니



면 언제 해보겠냐고. 그녀의 20대는 충동의 연속이었다. 만화를 그리고 정식 작가로 데뷔하기까지, 데뷔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입지를 굳히기 까지 모든 길은 자신의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고민하지는 않았다.

“순간순간 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쪽을 택했어요. 거짓말처럼 운도 정말 좋았어요.” 서나래 씨는 자기가 즐거운 일을 재밌게 하면 만사가 저절로 풀리는 것 같다고

느긋하게 말한다.

때로는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친구들을 볼 때 마다 살짝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날아간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지론(持論)은 한 가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해라. 나의 행복은 세상이 아닌 내가 만드는 것이기에.

김보해 기자 boo@dongguk.edu







시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글로벌 통화전쟁 속의 한국

최근 미국 하원이 환율 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통화전쟁 즉 환율전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전망(展望)된다.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환율전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금융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계경제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지켜온 원인은 미국의 우월한 국제금융전략에 있다. 미국은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해 변동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를 택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을 하락시켜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였으며 동시에 자본유입을 자유화시켜 미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수출해 무역에서 잃은 달러를 되찾아 오도록 했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금융전략에 휘말려 한국과 일본은 큰 손실을 보았다. 한국은 1990년 이후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자본자유화를 하면서 2번의 위기를 겪었다.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있었다.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온 달러를 외국에 투자하여 환

율하락을 막으려 했으나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를 40% 가까이 평가절상 시켰다. 결국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崩壞)되면서 최근 20년 동안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한 중국은 미국의 국제금융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아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자본거래에서 빼앗기지 않았으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고정환율제도를 다시 선택해 환율하락을 막았다. 이러한 중국의 효과적인 대처 때문에 미국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반면에 중국은 G2로 부상(浮上)하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이 요구하는 환율하락과 자본자유화 중에서 환율을 하락시키기보다는 자본유출을 자유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 전반에 일본이 해외부동산을 구입했던 것과 같이 자본유출을 자유화함으로써 환율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 제주도 부동산 구입과 일본과 한국의 채권 구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11

월 G2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소폭 내려 미국의 압력을 피해 가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요구와 같이 중국이 환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성장하려는 중국의 성장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2009년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약 2,000억 달러로 이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200억 달러와 비슷하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을 전망할 때 우리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고려하면 환율하락은 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원화 환율이 엔화나 위안화 환율에 비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과도한 외환의 유입을 규제해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의 유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전략적 게임인 환율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과거와 달리 좀더 현명한 국제금융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설

대학발전의 긍정적인 방향 모색해야

우리대학은 지난달 15일과 27일에 발표된 '2010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와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각각 10위와 17위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는 각종 계량화(計量化)된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교수·학부모·학생 3,000명의 인터뷰 및 재학생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산출된 결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대학의 변화의 결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다. 종합순위에서 지난해보다 11계단 상승(上昇)한 17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올해부터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를 분리(分離)해 얻은 결과로 상승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또 분리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위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소식이다. 우리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한국외대의 경우 통합(統合) 평가를 실시했지만 우리대학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분리평가로 인해 순위가 상승했지만 다른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26계단 상승한 국제화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국제화 부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6단계 상승해 전체 5위로 연세대(서울), 성균관대, 고려대(안암)보다 앞 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경주 캠퍼스가 분리 평가한 영향도 크지만 대학 측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국제교류팀이 직접 발로 뛰며 교환학생의 폭을 확대(擴大)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본부 측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외국인 교환비율을 늘리고 그로 인해 영어강의 비중이 커진 것도 이번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번 국제화 부문의 순위 상승의 사례는 우리대학도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높은 순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학내구성원들도 국제화 부문의 상승을 모범(冒犯)으로 삼아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수 연구 영역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4단계 상승해 34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순위다. 또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과 평판도 부문에서 각각 35위와 22위를 기록했지만 종합순위 17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순위다. 대학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연구부문과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점차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일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우리대학의 경쟁력(競爭力)과 사회적 평판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외평가에서의 순위상승 뿐 아니라 대학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내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협조(協助)도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단기간 노력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대학이 해왔던 것들이 최근 평가의 순위로 나타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인문사회 평가 부문 6위에 올라 인문사회 부문에서 여전히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선 국제화 부문, 인문사회 부문 등은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부문에 대해서도 대학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해 봐야 할 때다.

본지 제1496호(2010년 9월 13일자) '경주병원 건학이념 되돌아보아야' 제하의 사설 내용 중 '병원에서 유족에게 조문 및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b>동대신문</b>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a href="http://www.dgupress.com">http://www.dgupress.com</a>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a href="http://www.dongguk.edu">http://www.dongguk.edu</a>
편집장	최진아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60-4907		



메아리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요순(堯舜)

▲'요순'은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요(堯)와 순(舜)은 삼황오제신화의 오제에 속하는 임금으로 흔히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알려져있다. 요가 신하들에게 후계자를 추천할 것을 명하자, 신하들은 순을 추천했다. 이에 요는 순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순의 사람됨과 능력을 시험했고, 3년 후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요는 순을 섭정(攝政)으로 삼았다. 순 역시 왕위에 즉위한 이후 우(禹)라는 인재를 등용해 그를 후계자로 선정했고, 요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우에게 왕위를 선양(禪讓)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삼남인 김정은을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해 부위원장 직을 맡겼다. 이는 사실

상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정해 권력 세습을 공식(公式)화한 것이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아들인 김정은을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김경희를 함께 대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여동생 김경희와 그녀의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김정일 위원장이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반면, 세계 곳곳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세계 근·현대사상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은 전례가 없는데다, 권력 세습은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십년 이상 후계자 교육을 받아왔던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은 아직 이렇다 할 후계교육을 받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는 요가 3년동안 순의 뒤를 이을 시험하고, 20년 동안 일을 맡긴 후에 왕위를 선양한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요와 순이 천하를 다스리던 시대는 '요순시대'로 일컬어지며 치세의 모범으로 남았다.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로 이어진 태평성대는 요와 순이 왕위를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선양'한 덕분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향후 북한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능력'이 아닌 '혈육'으로 선정했고, 그 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후계자 교육조차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김정은에게 권력이 세습된다면 북한에서 태평성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요순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보 176호 <'홍치2년' 명 청화백자송죽문호> 전시



■ 박물관에서는 2010년 연중 기획으로 '이달의 문화재'란 테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박물관 소장품 중 그동안 미공개된 작품과 그 달의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1층 상설전시실 내 '이달의 문화재' 전시 코너에서 특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유물 관람의 폭을 넓히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10월에 '이달의 문화재'는 동국대 박물관이 가장 자랑하는 국보 176호 '홍치2년' 명 청화백자송죽문호(弘治二年 銘 靑華白磁松竹文壺)를 전시하고자 합니다.

10월은 동국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홀커밍데이'가 개최되는 달입니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청화백자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보편가액만 80억원에 이르고 소장 유물 중 가장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국보 176호 <'홍치2년' 명 청화백자송죽문호>를 공개전시 함으로써 동문들의 축제의 정을 더욱 빛내고자 합니다.

이 청화백자는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청화백자이자 조선전기 도자사 연구의 표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몸체 전체를 화곡으로 삼아 송죽문을 그렸으며, 농담을 적절히 가려 그린 그림은 구도나 필치가 매우 뛰어나 15세기 말경의 조선 청화백자의 높은 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 최고의 가치인 국보로 지정된 소중한 작품입니다.

10월 2일 홀커밍데이(토) 날은 특별 개관을 통해 학교를 찾은 많은 동문 및 본교 가족 분들에게 청화백자를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월을 맞이하여 가을 하늘 만큼 청아한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 10월의 문화재 : '홍치2년' 명 청화백자송죽문호  
弘治二年 銘 靑華白磁松竹文壺  
| 높이 48.5 cm | 지름 30.0 cm | 무게 18.0 kg  
| 朝鮮時代 1489年 | 國寶 176號
- 전시기간 : 2010년 10월 1일(금) ~ 10월 29일(금) 약 1달간  
\* 10월 2일(토) '홀커밍데이' 특별개관  
(관람 시간 : 13:00 - 21:00)
- 관람시간 : 월·금 (오전 10:00~오후 4:00)

\*문의 전화 02-2260-3722 / 전송 02-2260-8783

박물관

금주의 식단

월(10/4)	탕수육(2200)/돈가스(2500)/닭갈비소스볶음밥(2200)/갈비탕(3000)
상 화(10/5)	오징어머리(2200)/치킨가스(2500)/고추잡채덮밥(2200)/불고기전골(3000)
수(10/6)	삼겹두부찌기(2200)/스파게티(3000)/산채비빔밥(2200)/당장짜개(2500)
목(10/7)	갈비경단(2200)/상록원정식(3000)/치킨소스덮밥(2200)/참치섞어찌개(2500)
금(10/8)	제육순대볶음(2200)/피자돈가스(3000)/새우볶음밥(2200)/만두전골(2500)

월(10/4)	삼산적구이(2200)/피자돈가스(3000)/날치알참치볶음밥(2200)/만두전골(2500)
상 화(10/5)	고추참치(2200)/돈가스(2500)/주꾸미제육덮밥(2200)/감자탕(2500)
수(10/6)	제육떡볶이(2500)/고구마돈가스(3000)/테리야끼치킨덮밥(2200)/육개장(2500)
목(10/7)	비엔나볶음(2200)/치킨가스(2500)/낙지비빔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금(10/8)	만두탕수(2200)/치즈돈가스(3000)/볶음밥(2200)/비빔밥(2200)/수제비(2500)

월(10/4)	돈육콩나물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닭고기비빔밥(2200)
상 화(10/5)	짬뽕덮밥(2200)/돈가스(2200)/양송이불고기덮밥(2200)
수(10/6)	치킨소스덮밥(2200)/불돈가스(2800)/새싹참치비빔밥(2200)
목(10/7)	제육덮밥(2200)/카레돈가스(2800)/고추잡채덮밥(2200)
금(10/8)	유산술덮밥(2200)/피자돈가스(3000)/계란햄볶음*군만두(2200)

월(10/4)	치킨소스덮밥(2200)/돈가스(2500)/날치알새싹비빔밥(2200)
상 화(10/5)	주꾸미제육덮밥(2200)/쇠고기국밥(2500)/치즈치킨볶음밥(2200)
수(10/6)	테리야끼치킨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쇠고기숙주덮밥(2200)
목(10/7)	버섯덮밥(2200)/불돈가스(2800)/카레라이스(2000)
금(10/8)	제육떡볶음(2200)/치즈불닭살밥(3000)/불고기멸무비빔밥(2200)

# 지금 스크린과 브라운관은 ‘동국대 천하(天下)’

## 주요 드라마 및 영화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대학 출신 동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대학 연극영화과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이라도 하듯 지금 스크린과 브라운관은 동국대의 전성시대라고 불려도 무방하지 않다. 드라마는 물론이고 이제 브라운관을 넘어서 스크린까지도 우리대학 동문들이 평정하고 있다. 이번 문화면에서는 스크린과 브라운관 속 동문들이 어떤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이를 통해 우리대학 연극학과와 영화영상학과 의 역사와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대학 동문들이 스크린과 지상파 TV를 휩쓸고 있다.

월요일 오후 10시, 피로한 몸을 잠시 쉬고자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려보자. MBC에서는 동이가 방영(放映)되고 KBS에서는 성균관 스캔들, SBS에서는 닥터 챔프가 방영된다. 이들 드라마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대학 출신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곧 시작될 드라마 대물도 우리대학 출신 고현정(연극영화 94졸) 동문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 TV 드라마의 동국대 전성시대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스크린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상영 중인 14개의 영화 중 6개의 영화에서 우리대학 출신의 감독이나 배우가 활약하고 있다.

바야흐로 영화와 방송에서의 동국대 천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동문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스크린과 브라운관 속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동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 브라운관 속 눈부신 활약

월화수목금토. 하루라도 우리대학 동문이 나오지 않는 방송사가 없다.

MBC부터 살펴보자. 최근 23.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더하고 있는 월화드라마 ‘동이’에서는 주인공인 ‘동이’역에 한효주(연극학과)와 ‘인현왕후’역의 박하선(연극 10졸)동문이 후궁과 중전으로 나란히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에서는 소유진(연극 04졸)동문이 문헌진역을 맡아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KBS에서는 성균관 유생들의

로맨스를 다룬 월화드라마 ‘성균관스캔들’의 박민영(연극학과)이 ‘김윤희’역으로 남장을 한 여자의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일일드라마인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셋째 아들인 오정철 역을 맡은 장태성(연극학과)을 볼 수 있다.

SBS에서도 마찬가지다. 21.3%의 시청률로 종방(終放)을 맞은 수목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서는 ‘차대웅’역의 이승기(국통 09졸)동문과 ‘구미호’역의 신민아(연극학부)가 나란히 연인으로 나와 달콤한 사랑을 나눴다. 또한 월화드라마인 닥터 챔프에서는 국가대표 담당 주치의인 ‘김연우’역을 맡은 김소연(연극 06졸)동문이 주인공으로 태릉선수촌에서 명연기를 펼친다. 또 오는 6일부터 방영될 드라마 ‘대물’에서는 고현정 동문이 주인공인 ‘서해림’역으로 오랜만에 연기 나들이를 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일일드라마인 ‘여자를 몰라’에서는 ‘장금숙’역의 임예진(연극영화)동문이 출연하고 있다.

###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까지

우리 동문들의 활약은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을 평정한지도 오래됐다. 우리대학이 위치한 총무로는 과거 한국영화의 총본산(總本山)이었다. 과거 유현목, 이혜량 교수의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선배들의 명성을 잇는 후배들이 잇따라 연기와 연출분야에서 속속 주가를 높이고 있다. 우선 유쾌한 액션물로 추석과 함께 개봉한 영화 ‘해결사’의 감독인 권혁재(영상 06졸)동문은 최근 제 6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4만번의

구타’로 최우수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아이리스를 연출한 양윤호(영상 93졸)동문은 최근 김태희와 양동근이 출연하는 그랑프리를 개봉해 상영에 돌입했다.

배우들도 덩달아 열연중이다. 최근 09학번으로 입학한 김수로(연극학과)는 영화 ‘퀴즈왕’에서 코믹연기를 소화했으며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최민식(연극 89졸)동문이 연세살인범으로 캐스팅 돼 섬뜩한 연기를 선보였다. 그런가하면 영화 ‘해운대’에서 오동춘역을 맡았던 김인권(연극 03졸)동문은 이번에 개봉한 ‘방기?방가!’에서 주연으로 명품코믹연기를 펼쳤다. 얼마전에는 김주혁(연극 97졸)동문과 조여정(연극 03졸) 동문이 나란히 ‘방자전’에 출연해 물오른 연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 50주년 맞은 청출어람 연극영화과

올해로 우리대학 연극학과와 영화영상학과는 50주년을 맞았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영화계의 유현목 감독과 연극계의 이혜량 교수를 필두로 600여명이 넘는 재원들을 배출한 바 있다.

이덕화, 이경규, 최민식, 이정재, 고현정, 김혜수, 전지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배우와 연기자, 개그맨 등이 우리대학을 졸업했다.

마치 50주년을 맞은 우리대학의 연극학과와 영화영상학과 의 자랑스런 전통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동문들의 활약이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연극영화 50주년을 맞아 동문과 가족을 학교로 모두 초대하는 행사를 연다.

연극영화과 장한기 명예교수는 “백성욱 총장 재임 시절 연극영화과의 필요성을 느껴 1950년에 처음으로 연기과가 만들어졌다”며 연극영화과의 생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생성 당시 좋은 교수진이 있었기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었고,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했기에 오늘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우리대학 동문 없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은 상상할 수도 없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쪽(藍)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더 푸르다’는 뜻으로 좋은 스승에게서 더 좋은 제자가 길러져 갈수록 나아짐을 뜻한다. 앞으로도 실력 있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의가 일궈낸 우리대학 연극학과와 영화영상학과 의 화려하고 힘찬 행보(行步)를 주목해보자.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 드라마

방영일	작품명	출연동문
월-화	동이	한효주, 박하선
	성균관스캔들	박민영
	닥터 챔프	김소연
	자이언트	이덕화
수-목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이승기, 신민아
일일 드라마	황금물고기	소유진
	엄마도 예쁘다	장태성
	여자를 몰라	임예진

### 스크린

분야	작품명	출연동문
감독	해결사	권혁재
	그랑프리	양윤호
	방기?방가!	김인권
배우	퀴즈왕	김수로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서영희, 지성원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시계방향으로 ‘대물’ 고현정(연극 94졸), ‘동이’ 박하선(연극 10졸), 한효주(연극학과), ‘해결사’ 권혁재(영상 06졸), ‘그랑프리’ 양윤호(영상 93졸),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연극 89졸), ‘성균관스캔들’ 박민영(연극학과), ‘퀴즈왕’ 김수로(연극학과),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서영희(연극학과),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이승기(국통09졸), 신민아(연극학부) 동문.

